율곡을 기억하다 :
숙종시대의 율곡 이야기

임태홍(문학박사)

1. 숙종의 시대

제19대 조선 왕 숙종(肅宗, 1661～1720)은 재위 기간이 1674년부터 1720년까지, 46년간 왕위에 있었다. 이름은 이순(李焞), 자는 명보(明普)이며, 제18대 왕인 현종과 명성왕후 김씨의 외아들로 경덕궁 회상전(會祥殿)에서 태어났다.

6살이 되던 1667년(현종 8년) 정월에 왕세자에 책봉되었으며, 1674년 8월에 즉위, 재위 46년이 된 1720년 7월에 경덕궁 융복전(隆福殿)에서 사망하였다. 자녀로는 영조·경종·연령군 등이 있으며, 배우자로 인경왕후(1671년～1680년), 인현왕후(1681년～1688년) 그리고 인원왕후(1702년～1720년)가 있었다.

1671년 10살 때 김만기(金萬基)의 딸을 세자빈으로 맞이했는데, 이 부인이 인경왕후(仁敬王后)이다. 3년 뒤 13살 때 1674년 8월에 부왕 현종이 승하하자 국왕에 즉위했다. 이때 14세였다. 정권 초기 숙종은 송시열을 비롯한 서인을 숙청하고 허적·윤휴·허목 등 남인들에게 정권을 맡겼다. 남인은 현종 말년에 일어난 예론(禮論, 갑인예송)에서 승리하여 득세하였다.

1678년(숙종 4년)에 영의정 허적이 새 화폐 제조와 유통을 건의하여 상평통보(常平通寶)가 본격적으로 제조되어 전국적으로 유통되기 시작되었다. 활발해지기 시작한 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화폐 제조 사업이었다. 상평통보는 조선시대의 유일한 법정 통화였으며, 조선 시대 말기까지 사용된 화폐였다. 이러한 화폐의 유통은 국가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조치였는데, 이후 조선 사회의 상업 발달과 사회 경제적 발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1680년(숙종 6년)에 첫 부인인 인경왕후가 천연두를 앓다가 사망했다. 숙종은 이듬해 민유중(閔維重)의 딸을 계비로 맞이하였다. 이 부인이 인현왕후(仁顯王后)이다. 이해 영의정 허적의 서자 허견(許堅)의 역모와 관련하여 남인이 실각하고 서인이 집권하였다.(경신환국庚申換局) 서인은 이때 군권까지 넘겨받았다. 서인은 이후로 노장파와 소장파 간에 의견이 대립되고 송시열과 그의 제자 윤증 사이의 불화로 노장파의 노론과 소장파의 소론으로 분열되었다.

1682년(숙종 8년)에는 일본에 통신사를 파견하였으며 이후 1711년과 1719년에도 통신사를 파견하였다. 이러한 외교활동을 통해서 조선은 일본과 평화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왜관 무역의 조례를 확정 짓고 울릉도의 귀속 문제를 확실히 하였다. 울릉도와 독도 문제는 다행히 1693년에 어부 안용복(安龍福, 생몰년 미상)이 두 차례

나 일본에 가서 일본의 불법 고기잡이에 항의한 결과였다. 그가 쫓던 일본인 어부들은 호키의 태수에게 붙잡혀서 월경죄로 모두 사형을 당했다. 결국 그는 막부로부터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으나 당시 조정의 관료들은 그의 활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외교 분쟁을 일으킨 범죄자 취급을 하였다. 사실 그는 조정과 사전 연락 없이 독자적으로 외교 교섭을 행한 것이었는데, 그 성과가 인정을 받은 것은 18세기 이후였다.

또 1712년에는 청나라 측과 협상하여 백두산정계비(白頭山定界碑)를 세워서 북쪽 국경을 정리하였다.

1688년(숙종 14년) 10월에 소의(昭儀) 장씨(張氏)가 아들을 낳았다. 이 아들이 제20대 국왕 경종(景宗)이다. 이때 숙종은 소의 장씨를 승격시켜 희빈으로 봉하였는데, 다음 해 1689년 당시 집권세력이었던 서인들이 희빈 장씨가 낳은 왕자의 세자 책봉을 반대하였으나 숙종은 이를 관철시켰다. 이 과정에서 기사환국(己巳換局)을 통해 서인들을 숙청하여 남인이 다시 집권하였다. 숙종은 이어서 같은 해 5월에 왕자를 낳지 못한 인현왕후를 폐출(廢黜) 시키고 희빈 장씨(禧嬪張氏)를 왕비로 삼았다. 숙종은 남인들을 다시 정권으로 불러들이면서 서인파 노론의 영수로 활약했던 송시열을 사사(賜死) 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인현왕후는 노론 가문 출신이었으며 희빈 장씨는 역관 가문 출신으로 남인과 연계가 있었다. 이렇듯 국왕의 가족은 당파 싸움과 깊은 관련이 있어 정국의 갈등은 더욱 치열했다.

1694년(숙종 20년), 숙종은 갑술환국(甲戌換局)을 단행하여 집권파인 남인을 숙청하고 다시 서인을 대거 기용하였다. 이때 서인은 노론과 소론 사이에 갈등이 더욱 심해져 정쟁이 격화되었다. 남인은 이후에 당파로서 기반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다. 폐출되었던 인현왕후 민비는 이때 복위되었고 대신 희빈 장씨는 왕비에서 다시 희빈으로 강등되었다. 이해 9월에 숙의 최씨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후일의 영조(英祖)이다. 1701년(숙종 27년) 8월에 인현왕후가 사망하였다. 희빈 장씨가 인현왕후를 저주하였다는 죄를 물어 자진하게 하였다.

1702년 10월에 숙종은 김주신(金柱臣)의 딸을 왕비로 맞이하였다. 이 왕비가 인원왕후(仁元王后)이다. 1708년(숙종 34년)에 대동법(大同法)을 황해도 지역에도 실시함으로써 대동법의 전국적인 시행이 이루어졌다. 광해군 때부터 실시된 대동법은 이미 1677년에 경상도에서 실시하였고, 1717년에는 황해도에서 실시하였는데 이때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 것이다. 이러한 대동법은 지방의 특산물로 바치던 공물을 쌀로 통일하여 바치게 한 제도로 1894년 세계 개혁 때까지 조선 시대 후기 세금 징수와 재정 분야에서 근간을 이루는 제도가 되었다.

1716년, 그동안 서인이 소론과 노론으로 분열되어 불안한 협력을 하고 있었는데 이즈음부터 남인 일색의 정권이 갖추어지면서 소론이 정치적 박해를 받았다. (변신처분)

1720년(숙종 46년)에 전국적인 양전 사업(量田事業, 즉 토지 조사사업)이 이루어졌다. 이 사업은 광해군 때 시작되었는데 1709년에 강원도, 1720년에 삼남 지방 등에서 실시하였는데 이때 전국에 걸친 양전 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었다. 이것 역시 숙종 시대 경제 분야에서 이룩한 큰 성과였다. 앞에 소개한 대동법과 함께 이러한 경제 정책은 조선 시대 후기 사회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영조·정조 시기 중흥의 토대가 이때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해에 숙종은 회갑을 맞이하였는데, 6월부터 병이 깊어져서 6월 8일(음력, 이하 월일은 모두 음력임)에 경덕궁(慶德宮)의 융복전(隆福殿)에서 승하하였다. 시호는 현의광륜예성영렬장문헌무경명원효대왕(顯義光倫睿聖英烈章文憲武敬明元孝大王)이고, 묘호는 숙종, 능호는 명릉으로 경기도 고양시의 서오릉에 있다.

숙종 시대에는 조선 중기 이래 계속되어 온 붕당정치(朋黨政治)가 더욱 심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그 폐해가 심각하였다. 송시열과 윤증(尹拯)사이에 일어난 갈등으로 회니시비(懷尼是非) 가 있었으며, 왕세자(경종)와 왕자(영조)를 각각 지지하는 소론과 노론의 분쟁 등 당파 간의 정쟁 역시 매우 격심했다. 또 외척의 권력 장악에 대한 사류들의 비판, 왕과 관료들 간의 충돌까지 곁들여져 붕당정치의 폐단은 더욱 심각하였다.

남인 세력은 숙종 초기에 이미 서인 처벌과 정국 운영 방식을 둘러싼 의견 대립이 심해져 청남(淸南)과 탁남(濁南)으로 분열되었다. 탁남파로는 허적, 민암(閔黯), 민희(閔熙), 오시수(吳始壽) 등이 있었으며, 청남파로 허목·윤휴·홍우원(洪宇)·권대운(權大運)·이봉징(李鳳徵)·이옥(李沃) 등이 있었다. 서인 역시 노론과 소론으로, 그리고 노론 역시 화당(花黨)과 낙당(駱黨)·파당(坡黨) 등으로 분열되는 등 각 당파 내부의 반목과 갈등도 심각해졌다.

숙종은 집권세력을 일거에 바꾸는 환국 정치로 이를 타개하여 왕권을 강화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는 효종·현종 시기 이래로 손상된 왕실 권위와 약화된 왕권에 대한 반발이기도 했다. 숙종은 적절한 권력 안배와 교체로 붕당 간의 갈등을 촉발시키고 자신에 대한 충성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환국 상황을 적절히 이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윤휴(尹鑴)·허적(許積)·이원정(李元楨)·송시열·김수항(金壽恒)·박태보(朴泰輔) 등 당시의 많은 유명 인사들이 사망하는 화를 입었다.

결과적으로 왕권은 강화되었고 남쪽에서의 왜란과 북쪽에서의 호란을 겪으면서 무너진 사회 체제의 전반적인 복구와 정비가 활발히 추진되었다. 또한 대동법의 실시와 양전법의 추진 등 각종 제도와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도 강화된 왕권 덕분이었다고 할 수 있다.

2.『숙종실록』

율곡의 본명인 '李珥(이이)'라는 한자 이름으로 <조선왕조실록>(국역본, http://sillok.history.go.kr/, 2023년 9월 1일)을 검색해보았다.

『숙종실록』은 192건이 검색되었다.『숙종실록 보궐정오(補闕正誤)』에는 17건이 검색되었다.『숙종실록 보궐정오』란『숙종실록』의 일부를 수정하여 바로 잡은 것이라는 뜻이다.

『숙종실록』의 기록은 1674년(숙종 즉위년) 8월부터 1720년(숙종 46년) 6월까지 숙종이 조선 국왕으로 재위했던 45년 11개월간 조정 내외에서 일어난 국정 전반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다. 총 65권 73책으로 되어 있다.

이 실록의 편찬은 1720년(경종 즉위년) 11월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숙종과 희빈 장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경종은 소론의 지지를 받아 왕의 자리에 올랐으나 정권은 노론이 장악하고 있었다. 노론 측은 나이가 6살 더 어린 동생인 연잉군(후일의 영조)을 지지했다. 하지만 처음에『숙종실록』편찬은 노론인 김창집(金昌集)이 총재관(摠裁官)이 되어 시정기(時政記),『승정원일기』등 기록을 바탕으로 실록 편찬을 담당했다.

그런데 1달 뒤인 12월에 소론 측의 김일경(金一鏡) 등이 신축옥사(辛丑獄事)를 일으키고 연달아 다음 해에는 임인옥사(壬寅獄事)를 일으켜 노론을 축출하고 정권을 장악했다. 신임옥사(壬寅獄事)는 1721년 연잉군(후일의 영조)을 왕세제로 책봉하여 동생인 경종을 대리청정하는 체제를 구축하려고 하였으나 소론 측의 반격으로 실패로 돌아가 노론이 축출된 사건이다. 1722년에 일어난 임인옥사는 노론측이 경종을 시해하려고 했다는 목호룡(睦虎龍)의 고변을 계기로 김창집을 위시하여 이이명(李頤命)·이건명(李健命)·조태채(趙泰采) 등 노론 측 대신들이 화를 당한 사건이다.

이러한 사건으로 소론 측이 정권을 잡고『숙종실록』의 편집도 장악했는데 대신이던 조태구(趙泰耉)가 총재관이 되어 그 아래 각 방의 당상 및 낭청의 대부분을 소론 측 관리로 바꿔서 편찬을 진행했다.

그런데 경종은 재위 4년만인 1724년 8월에 병으로 사망하고 말았다. 경종은 즉위 초부터 몸이 좋지 않았고 세자 시절부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다. 경종이 사망함으로써 영조가 왕위에 오르고 조정의 정세도 급변하여 다시 노론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숙종실록』책임자도 노론 측 관료로 바뀌었다. 이후 노론의 관리들이 편집작업을 계속하여 1727년(영조 3년) 9월에 인쇄가 완료되었다. 그런데 이때 정미환국(丁未換局)이 일어났다.

영조는 즉위한 뒤 당쟁의 폐단을 통감하고 탕평책을 펼쳤다. 그래서 당색이 약한 온건한 인물로 인사를 개편하여 정국을 변환시켰는데 이를 정미환국이라고 한다. 노론이 정권을 잡았으나 소론 측 관료들도 불러들여 조정의 업무에 참여시켰다.

이로써 실록 편찬도 소론의 의견을 듣게 되었는데 소론 측은 노론이 편찬한 실록

에 잘못이 있다고 개수(改修)를 요구하였다. 노론에 불리한 일부 기사는 삭제하거나 일부러 잘못되게 기록한 것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전체적인 개정은 또다시 장기적인 시일이 걸리고 번잡하므로 각 권의 끝에 빠진 기사를 보충해 넣거나 잘못된 기사를 바로잡아 싣게 되었다. 이것이 『숙정실록 보궐정오(補闕正誤)』이다. 이 책은 별도로 실록보궐청(實錄補闕廳)을 설치하여 편찬하였으며 1728년 3월에 인쇄를 마치고 노론이 편찬한 실록과 합쳐서 각 사고(史庫)에 보관하였다.

율곡이 사망한 뒤 숙종 시대까지 <조선왕조실록>에 언급된 율곡 기록을 보면 각 실록별로 다음과 같다.

『광해군일기 중초본』 22건(『광해군일기 정초본』은 18건)
『인조실록』 63건
『효종실록』 32건
『현종실록』 57건(『현종개수실록』은 96건)

이들 건수와 비교해보면 『숙종실록』의 기록 건수는 이상하게 월등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율곡에 대한 기록이 숙종 시대에 들어와 폭증한 것이다.
율곡(1536년~1584년)은 중종 31년에 태어나 그 이후로 명종(明宗, 1534년~1567년)을 거치고 마지막으로 선조(宣祖, 1552년~1608년) 임금을 모셨다. 율곡 생전에 <조선왕조실록>에는 다음과 같은 건수로 율곡의 일이 언급되어 있다.

『명종실록』 13건
『선조실록』 203건(『선조수정실록』은 245건)

『숙종실록』의 율곡 기록 건수(192건)가 율곡이 살아 있을 때 일을 기록했던 『선조실록』의 기록(203건)에 육박한다는 것은 율곡에게 숙종 시대(재위: 1674~1720)가 그만큼 특별하다는 것임을 알려 준다. 율곡이 사망한 뒤 100여 년이 지난 숙종 시대에 율곡과 관련하여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참고로 『숙종실록』 이후의 실록에서 율곡 관련 기사 건수는 다음과 같다.

『경종실록』 7건(『경종수정실록』 4건)
『영조실록』 76건
『정조실록』 55건
『순조실록』 23건
『헌종실록』 2건
『철종실록』 8건
『고종실록』 30건

『순종실록』1건

역시 『숙종실록』 율곡에 대한 기록이 압도적으로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숙종 시대에 율곡은 어떠한 일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언급되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3. 집권 초기의 율곡 관련 기록

<조선왕조실록>은 임금에 관한 기록이고 조정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기록이다. 그러므로 『숙종실록』에 기록된 율곡 기록은 당연히 정치적인 것이고 또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율곡과 같이 조정안에서 그리고 선비사회에서 학맥을 형성한 경우는 더욱 그렇다. 율곡의 경우는 그 정도가 매우 심하다. 아마도 <조선왕조실록> 가운데에서 언급 빈도로 따지면 조선의 지식인 가운데에서 가장 많을 것이다.

이는 율곡의 영향력이 그만큼 컸다는 것이며, 또 율곡 사후 후대의 관리들이 율곡의 지명도를 이용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것은 율곡을 끌어들여 자신의 정치적 기반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임금들도 마찬가지였다. 밑의 신하들이 율곡을 자주 언급하니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외에도 율곡 자신이 생전에 고위 관리였으며 율곡이 남긴 저술이며 사상이 국가의 제도나 정책과 관련된 것들이 많았고 또 임금의 행동이나 마음가짐과 관련된 수양의 지침서들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율곡은 빈번하게 조정 관료들의 대화 중심에 놓이게 되었다. 이것이 율곡 철학이나 율곡 사상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다. 조선시대를 이해하고자 할 때 그리고 우리 사회의 심층을 살펴보고자 할 때 율곡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숙종이 즉위한 직후 남인이 집권하던 시기 즉, 숙종 즉위년(1674년)부터 숙종 5년(1679년)까지 『숙종실록』에 기록된 율곡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숙종실록』 1권, 숙종 즉위년 12월 30일 기사(유세철의 과거 응시 금지에 대해 벌을 풀어주도록 명하다.)
2) 『숙종실록』 3권, 숙종 1년 4월 10일 기사(경기 진사 성호석이 송시열의 석방을 청하는 상소를 올리다.)
3) 『숙종실록』 3권, 숙종 1년 4월 25일 기사(이옥을 헌납으로, 남천택을 장령으로 윤휴를 우윤으로 제수하다.)
4) 『숙종실록』 4권, 숙종 1년 6월 2일 기사(좌의정 김수항이 면직하여 주기를 빌므로 허락하다.)
5) 『숙종실록』 4권, 숙종 1년 7월 9일 기사(대신들을 소집하여 한재를 물리칠 방도를 묻자 복선군 형제 석방 등을 건의하다.)
6) 『숙종실록』 4권, 숙종 1년 9월 10일 기사(홍유부를 동몽 교관으로 삼다.)
7) 『숙종실록』 5권, 숙종 2년 2월 8일 기사(서얼 허통과 백관의 반록 및 김성일의 증시 문제를 논의하다.)
8) 『숙종실록』 6권, 숙종 3년 5월 14일 기사(참찬관 유명천이 이이의 이기설을 잘못 말하다.)
9) 『숙종실록』 7권, 숙종 4년 8월 13일 기사(대신과 비변사의 제신을 불러들여 만나 보다.

10)『숙종실록』8권, 숙종 5년 3월 12일 기사(생원 송상민이 스승 송시열은 간신들의 모함을 받고 있다는 책자를 만들어 올리다.)

율곡에 대한 이러한 기록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대략 다음의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율곡을 비판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 : 1), 6)
(2) 율곡을 존경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 : 2), 3), 4), 10)
(3) 율곡의 정책이나 사상과 관련된 기록 : 5), 7), 8), 9)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각각의 율곡 관련 기록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율곡을 비판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

1) 번과 6) 번 기록은 율곡을 비판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으로 그들을 관대하게 처분을 내려달라는 내용이다. 숙종 초기에 서인들은 축출당하고 남인 관료들이 조정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 때문에 율곡을 비판하다 억울하게 법적인 처분을 당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를 풀어달라고 요청한 기록이다.

1) 번 기사는 성균관에서 율곡과 우계 성혼을 '추하다고 헐뜯은 김강(金鋼)과 남중유(南重維)'에 대한 처벌을 풀어줄 것을 건의한 기록이다. 김강은 현종 4년(1663년)에 상소문을 올려 "이이(李珥)가 일찍 집안에서 불행을 당하여 선문(禪門)에 종사했다는 것은, 이이가 상소하여 스스로 그 사실을 말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고(故) 상신(相臣) 이항복(李恒福)이 지은 그의 비문에도 '19세에 출가(出家)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율곡의 불문 종사를 들어 문묘 종사를 반대한 적이 있었다. 남중유도 같은 해 율곡과 우계 성혼의 '학문과 도덕이 조잡하고 공명하지 못하다.'고 평하고, 문묘에 종사하자는 청에 반대하는 소를 올려 물의를 일으킨 바 있어 1년간 과거 응시를 정지당한 적이 있었다.

이러한 두 사람에 대해서 숙종은 "국시(國是)가 이미 정해지고 의례(議禮)도 이미 밝혀졌다. (중략) 김강·남중유 등도 또한 배향하는 일을 가지고 서로 다툰 것인데" 라고 하면서 벌을 풀어주라고 하명을 하였다.

6) 번 기사도 율곡과 우계에 대해 투서하여 성균관에서 처벌을 받은 홍유부(洪有阜)의 벌을 풀어주라는 내용이다. 홍유부는 1650년(효종 1년)에 율곡 등에 대해서 헐뜯는 내용을 주위에 알리고 다녔는데, 그 말들이 지나치게 도리에 어긋났다고 한다. 이 일로 그는 일정 기간 동안 과거시험을 치를 수 없도록 정거(停擧, 과거 응시 금지) 하는 벌과 부황(付黃)의 처벌을 받았다. 부황의 처벌을 받으면 차후에 임금의 결재(決裁)를 받아야만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다. 남인의 영수 윤휴는 홍유구가 억

울하게 이러한 벌을 받고 2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벌을 받고 있다고 임금에게 호소하고 그에 대해 벌을 풀어주기를 간청하였다. 숙종은 이에 그 죄를 풀어주고 그를 참봉에 임명하였다가 나중에 동몽교관(童蒙敎官)으로 삼았다.

이때 남인이 권력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위의 1) 번, 2) 번 기사에 나온 김강·남중유 그리고 홍유부 등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다. 만약 서인이 집권했더라면 용서하지 않았을 것이다. 서인들이 보기에 이들의 율곡 비판은 지나친 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참고로 숙종 초기에 남인이 정권을 잡게 된 계기는 2차 예송논쟁(갑인예송)과 관련된다. 갑인예송은 현종 15년, 즉 1674년에 현종의 어머니 인선왕후(효종의 부인)가 사망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때 현종의 할머니이자 인조의 계비인 장렬왕후가 아직 살아 있어서 죽은 며느리를 위해 상복을 입게 되었다. 인선왕후가 맏며느리라면 1년, 그렇지 않다면 9개월을 입는 것이 관례였다. 송시열과 서인은 9개월의 상복을 입을 것을 건의하여 그렇게 통과시켰다. 그러나 나중에 영남의 유생 도신징(都愼徵)과 남인 측이 효종이 국왕에 등극한 이상 인선왕후는 맏며느리의 자격을 갖추게 된다면서 1년 상복을 주장하여 현종이 나중에 1년 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서인의 9개월 설은 왕통의 특별함을 인정하지 않고 왕가의 예절도 사대부의 예절과 동일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관점이었다. 반면에 남인의 1년 설은 왕가의 예절은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차남이라도 일단 임금의 자리에 오르면 장남과 같은 자격을 가진다는 것이었다. 왕통의 특별함을 인정해주는 설이었다. 현종은 왕통의 특별함을 인정하지 않는 서인 관료들을 배척하기 시작하다 갑작스럽게 사망하였다.

현종이 사망한 뒤 임금에 오른 숙종은 예송을 잘못 이끈 죄를 물어 장기간 집권을 했던 서인들과 송시열을 정권에서 몰아냈다. 이것이 숙종 초년에 남인들이 득세한 이유이다.

(2) 율곡을 존경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

앞에 제시한『숙종실록』기사 2) 번, 3) 번, 4) 번, 그리고 10) 번의 기록이 여기에 해당한다. 서인 측 대표로 예송의 책임을 지고 유배 생활을 하게 된 송시열 관련 기록 2) 번, 10) 번과 서인 측 관료이지만 조정에서 고위직에 있었던 김수항의 사직 관련 기록 4) 번이다. 이것들은 모두 서인과 관련된 기록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3) 번은 남인 영수 윤휴 관련 기록이다. 이와 같은 순서로 기록의 내용을 살펴본다.

2) 번 기사에서는 경기도 진사 성호석이 송시열의 석방을 청하는 상소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경기도 진사 성호석(成虎錫) 등이 상소문을 올려 송시열의 석방을 청하였으나, 임금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성호석의 증조부 성성남(成成瀗)은 젊어서 이이와 성혼의 문하에 유학하며 선(善)을 좋아하고 배우기를 기뻐하였기에 친구들에게 존중을 받았다. 동인과 서인이란 말은 선조 때에 시작되었는데, 동인이 다시 남인(南人)과 대북(大北) 소북(小北)으로 나누어져서 교대로 들어와 정권을 담당하였다. 인조(仁祖) 계해년 뒤에 서인이 비로소 요직에 있으며 남인과 북인의 당을 모두 끌어들여 함께 청관 요직(淸官要職)을 차지하였으나, 남인들은 자기들이 권력을 주관하지 못함을 한으로 여겨 매양 기회를 엿보았다.”

여기에서 율곡에 대한 언급은 성호석의 증조할아버지 성성남이 율곡과 우계에게서 배웠다고 하는 대목에 보인다. 이 기사는 성호석의 상소문을 그대로 베껴 쓴 것인지, 사관이 상소문을 읽고 자신의 입장에서 재정리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영조 시기 초기에 서인(노론)이 집권을 하였기 때문에 즉 사관 역시 서인의 입장에 서있기 때문에 이 기사에서는 남인을 비판하는 내용이 적지 않게 들어 있다.

참고로 이 기록에 나오는 숙종 초년 송시열의 상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처음에 남인들이 모여서 송시열의 죄명 6, 7가지를 의논할 적에 먼저 예제를 그르쳤다고 말하여 송시열의 관직을 파면하여 박탈하도록 하고, 점차로 형률(刑律)을 더 주어서 장차 극형에까지 이르게 하려고 하였다. 김우명이 처음에 이미 그들 남인과 의논을 같이 한 처지이므로, 송시열의 죄를 풀어주려고 했으나, 그대로 되지 않아서 송시열이 먼 지방으로 귀양 간 것은 1월 12일이었다. (중략)

송시열의 문하생 윤명우(尹明遇) 등 18인과 이담(李檟) 등 1백4인과 유학(幼學) 어수만(漁壽萬)과 진사(進士) 이진식(李震栻) 등 수십 인과 정상룡(鄭祥龍) 등 80여 인이 앞뒤로 대궐문에서 호소하여, 혹은 들어가고 혹은 물러서며 혹은 멀리 귀양가고 혹은 과거 응시 금지를 당하였다. 그 밖에도 조정에서 벼슬하는 이들까지 다투어 말하며 신원(伸冤)하여 변명하는 자들이 서로 잇달아 죄를 받았는데도 이를 피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남인들은 이러한 자들을 지목하여 나라를 원망하고 당파를 위하여 죽는 자들이라 하니, 임금이 그 말을 더욱 믿어 송시열을 권모술수가 많은 이로 여기어 그를 음흉하고 참독(慘毒, 참혹하고 지독)하다는 것으로 배척하였다.”

숙종 초년은 이렇게 송시열이 배척당하고 관련 서인들이 조정에서 쫓겨나 남인 관료들이 조정을 장악한 상태였으나 『숙종실록』을 편찬할 당시는 서인 측이 권력을 장악하고 편찬도 서인 측(노론)이 주동을 하였으므로 내용은 남인을 비판한 것이 되었다. 이 기사를 읽어보면 숙종 초기에 숙종은 남인의 말을 들어 송시열을 음흉하고 참혹하며 지독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그들은 율곡의 문묘 종사에 대해서는 더욱 말할 필요가 없이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10) 번 '생원 송상민이 스승 송시열은 간신들의 모함을 받고 있다는 책자를 만들어 올리다.'라는 기사는 송상민에 대해서 "생원 송상민(宋尙敏)은 송시열과 송준길의 제자로, 글과 행동과 학식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는 사람인데, 그의 스승 송시열이 뭇 간신들의 모함을 입고 있는데도 임금이 깨닫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기해년(1659년 현종 즉위년) 이후 예설을 논하게 된 시말(始末, 처음과 끝)과 여러 차례 죄를 입은 사건들을 낱낱이 열거하여 하나의 책자를 만들어 바치니, 수만 글자에 달했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송상민의 상소문에 대해 남인 관료 승지 박신규(朴信圭)는 임금에게 상소문의 내용이 지극히 흉악스럽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임금은 이에 대해 "생원 송상민을 병조에 구류(拘留)하고, 그의 상소문은 거두어 들이라."는 명을 내렸다.

송상민이 올린 상소문에 언급된 율곡은 다음과 같다.

"선묘조(宣廟朝, 선조 시대 즉 선조 16년, 1583년)에 이르러, 선정신(先正臣) 이이와 성혼은 도학과 덕망이 당시의 으뜸이었으나 이때 동인(東人)은 심의겸(沈義謙)의 문객과 친한 벗을 이용하여 이이와 성혼의 죄안을 만들었습니다. 이이와 성혼을 구제하는 자는 모두 배척되고 이이와 성혼을 헐뜯는 자는 좋은 벼슬을 얻었으므로, 이이와 성혼은 실로 동인의 출세를 위한 기막힌 보배였습니다."

선조시대 붕당의 상황을 소개하면서 율곡을 언급하였다. 참고로 송상민의 상소문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오늘날 논의하는 자들은 또 송시열에 관해 의논을 거두는 가운데서 이른바 '효종은 인조의 서자(庶子)로 보아도 상관이 없다.'는 설을 가지고 죄안(罪案)으로 삼았으나 청컨대, 신은 이것을 논변하겠습니다. (중략) 이것들을 근거한다면 이른바 서자란 대개 중자(衆子)를 가리켜서 한 말입니다. 이미 서(庶)라고 말했고 또 왕이라고 말했으니, 어찌 '서(庶) 자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또 서(庶)라는 호칭이 제왕의 몸에 무슨 해가 된단 말입니까? 이것이 오늘날 저들의 허구(虛構)입니다."

송상민은 이렇게, 남인이 송시열을 공격할 때, 송시열이 임금을 적처 소생이 아니라고 하거나 효종을 인조의 서자로 보아도 상관이 없다는 발언을 가지고 죄인으로 만들어 왕통을 능멸했다고 비난한 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남인 관료들을 한꺼번에 몰아서 비판했다.

"권대운(權大運, 당시의 영의정)은 윤휴와 허목은 허수아비나 마찬가지입니다. …… 지금 권대운의 독은 유휴이나 허목보다 심합니다. 밖으로 온건론 같지만 사실

은 칼을 갈며, 처음엔 물러서는 것 같지만 끝내는 칼자루를 잡고 있습니다. (중략) 그 나머지 홍우원·이무·이원정·이우정·오정창·이옥·정지호·권환·김총·심단의 무리들과 그 밖에 조정에 충만하여 전하의 귀를 현혹시키는 자들은 모두 윤휴의 당이 아닌 사람이 없으니, 그 수를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상소문을 읽고 조정에서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남인들과 그들을 믿고 지지하던 숙종은 송상민의 행동을 묵과할 수 없었다. 임금은 그를 병조에 구류(拘留)시켰다. 구류는 징역이나 금고보다는 가벼운 징벌에 해당한다.

4) 번 기사는 서인 관료 김수항의 사직서 관련 내용이다. 이때 좌의정 김수항은 허적(許積)과 권대운(權大運) 등 남인들이 조정을 장악해가는 것을 보면서 스스로 물러날 생각을 하였다. 그래서 보고서를 올려 병을 이유로 면직(免職)을 요청하였다. 숙종은 그가 정말로 병이 있어서 면직을 요청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홍문관 관리를 불렀다. 이에 승지 조사기(趙嗣基)가 나왔는데 이 자리에서 그는 먼저 임금에게 "소대(召對, 임금과의 면담 혹은 임금의 강론)에서는 반드시 『강목(綱目)』만을 강론할 것이 아니고 성학(聖學)에 전념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옥당(玉堂, 홍문관)으로 하여금 정자와 주자 및 우리나라 근대의 현신인 이언적·이황·이이·유성룡·정경세 등이 학문을 논의한 문장을 발췌하여 책 한 권으로 만들어 들이게 하기를 청합니다."라고 건의하여 임금의 허락을 받았다.
임금은 이 자리에서 조사기에게 이렇게 물었다.

"좌의정 김수항의 병이란 실지로 병이 있는 것인가?"

조사기는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대답을 하였다. 이러한 일에 대해서 사관은 이렇게 기록했다.

"나라의 제도에 대신은 높이 예우하여 일찍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였고, 임금도 또한 그렇게 하였었는데, 지금 이름을 부른 것은 그를 미워하여 장차는 물리쳐 버리려고 하기 때문이다."

숙종은 김수항의 사직 요청을 받아들이고 조사기에게 그런 지시를 내리도록 하였다. 사관은 김수항이 사직하게 된 배경을 이렇게 적었다.

"김수항은 왕실이 외롭고 약하기 때문에 혹시나 자신이 임시변통이나마 될 수 있기를 바라서 억지로 힘써서 다시 나왔었다. 그러나 그의 말이 임금의 뜻을 크게 거슬렸고, 허적과 권대운의 사이에 개입되어 스스로 용신(容身) 할 수가 없어서 공무를 집행한 지 겨우 20여 일 만에 곧바로 다시 물러 나왔다. 여러 소인의 무리들이

침노하고 능멸(凌蔑) 하면서 그가 물러가지 아니할까 두려워하였으며, 윤휴(尹鑴)와 허목(許穆) 등도 그를 쫓아내고 그 자리를 뺏으려 하였다.”

윤휴와 허목은 남인 대표로 송시열·김수항 등 서인들과 예송논쟁에서 다퉜다. 숙종 초기에는 이들이 논쟁에서 이기고 정권을 잡아 득세하였기 때문에 김수항은 업무 수행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히고 이번에 허가를 받은 것이다.

이러한 일로 숙종과 면담을 하게 된 조사기(1617년~1694년)는 관직생활이 순탄치 않은 사람이었다. 조선시대의 공무원이 얼마나 위험한 직업인지 몸소 보여준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31세 때(1648년, 인조 26년) 식년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이듬해 예문관검열에 임명되어 관직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춘추관 기사관이 되어 자기 아버지 조빈과 함께『인조실록』편찬에도 참여하였다. 하지만 효종 3년(1652년)에 사관으로 시정기(時政記)의 편수를 태만히 하였다고 하여 옥살이를 하였다.

3년 뒤 경기 도사로 있을 때는 무인의 말을 탈취하여 사간원의 탄핵을 받았다. 또 개성 경력(開城經歷) 재직 중(1661년, 현종 2)에는 노비를 불법으로 감금하여 자살에 이르게 한 죄로 사헌부로부터 파직의 탄핵을 받기도 했다. 11년 뒤(1672년, 현종 13년) 제용감정(濟用監正)으로 있을 때는 율곡과 우계의 문묘 종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처벌이 너무 가혹하다는 상소를 올린 것이 물의를 일으켜, 3년의 노역형에 처하여졌다가 파직 당했다.

1678년(숙종 4년)에는 오위의 부호 군에 임명되었으나 송시열을 공격하여 물의를 일으켜 1680년에 귀양을 가 유배생활을 하게 되었다. 1694년(숙종 20년)에는 명성왕후를 근거 없이 모욕하였다고 하여 12차에 걸친 엄한 신문을 받고 결국 참수형에 처해지고 가산을 몰수당했다. 이렇게 46년간의 관직생활을 하면서 옥살이,(·)탄핵,(·)유배,(·)참수형까지 온갖 종류의 처벌을 다 받았다. 그 자신이 잘못한 점도 있지만 참수형을 받게 된 이유는 명성왕후가 궁녀들의 불륜 소문을 적극 나서서 무마시킨 잘못을 지적한 것인데 그로서는 몹시 억울한 일이었다. 숙종 시대 목숨을 건 당파싸움이 그의 관직생활을 괴롭힌 일등공신이었다고 할 수 있다.

3) 번 기사는 남인 영수 윤휴(尹鑴)와 관련된 기록이다. 이때 윤휴는 우윤으로 임명되었다. 율곡을 언급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별히 윤휴를 승진시켜 우윤(右尹)으로 삼았다. 윤휴의 아버지 윤효전(尹孝全)은 광해군 때에 위훈(僞勳)에 기록되어 벼슬이 대사헌이었고 대북파(大北派)가 되었었다. 윤휴는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었고, 병자년(1636년, 인조 14년) 과 정축년(1637년, 인조 15년)의 난을 당한 뒤에 호서에 거주하면서 송시열·송준길·권시·이유태·윤선거 등과 교류하였으며, 이이와 성혼을 존경하였다. 송시열 등은 그의 재주와 학문을 사랑하여 나이를 잊고서 사귀었다. 윤선거가 윤휴를 더욱 존중하여 경국제세(經國濟

世, 나라를 경영하고 세상을 다스림) 할 인재로 인정하였다. 그 뒤에 민정중(閔鼎重)이 효종 때 천거하자 친히 가서 만나보겠노라고 하시기에 이르렀고, 송시열 등은 그를 추천하여 지평(持平)을 삼으려 하였다. 그러나 스스로 포의(布衣)라 일컫고는 끝내 나오지 아니하였다. 이에 그의 명성이 더욱 크게 떨치어서 먼 데서나 가까운 데서나 모두 윤포의(尹布衣)로 일컬으면서 그 얼굴을 서로 알기를 원하였다."

윤휴가 이이와 성혼을 존경하였다는 기록이다. 송시열은 처음에 이런 윤휴를 존중하고 가깝게 사귀었으나 나중에 윤휴가 주자의 학설을 무시하고 주자와 다른『중용』해석을 시도한 것에 실망하고 윤휴를 사문난적(斯文亂賊), 즉 이단으로 비판하였다. 예송논쟁에서도 윤휴와 송시열은 서로 다른 설을 제시함으로써 완전히 대립하게 되었다.

(3) 율곡의 정책이나 사상과 관련된 기록

앞에 소개한『숙종실록』초기의 10개 기사 가운데 5) 번, 7) 번, 8) 번, 9) 번이 율곡의 정책이나 사상을 회고하는 기록이다. 여기서 5)는 서얼·차별·해지·건의, 7)은 서얼 문제 8)은 율곡의 이기설 문제, 9)는 성균관 등 관청에서 자리 앉는 순서에 대한 것이다.

5) 번 기사는 숙종 1년(1675년) 7월 9일 자 기록으로 '대신들을 소집하여 한재를 물리칠 방도를 묻자 복선군 형제 석방 등을 건의하다.'는 내용 중에 율곡이 서얼 차별 해제를 건의한 기록이 나온다. 1583년(선조 16년)에 북방에 이탕개(尼湯介)의 난이 일어났다. 여진족 추장 이탕개를 중심으로 함경도 회령 지방의 여진족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당시 병조 판서였던 율곡이 서얼로 하여금 북방 지역에 곡물을 납부하게 하여 그 대가로 과거시험을 볼 수 있도록 건의해 허락을 받았다.

그 덕분에 숙종 초년에 영의정을 하고 있었던 허적(許積)은 애첩에게서 얻은 서자 허견(許堅)을 남의 글로 과거에 합격할 수 있었다. 허적은 사사건건 율곡을 공격하였으나 율곡의 덕을 본 것이다. 그러나 허적의 아들은 "사람됨이 패악하고 허망한데다가 세력을 빙자하여 교만하고 사치스러워서, 조그만 벼슬은 하려고 하지 않았으나 허적은 그를 사랑하여 현관(顯官, 문관과 무관의 정식 관료)으로 등용하고 싶어 했다."(『숙종실록』숙종 1년 7월 9일 자 기록) 그러나 당시 중요한 관직(淸要職)에 서자의 등용은 허락되지 않았다. 허견은 나중에 모반을 꾸몄다는 밀고를 받고 군기시(軍器寺)가 있던 오늘날의 서울시청 자리 앞 큰길에서 능지처참을 당했다. 이때 그 아버지 허적도 복선군·복창군·복평군 등 왕실의 종친과 기타 남인 실권자 등이 죽음을 당하였다. 이 사건으로 숙종 초기 남인의 권력은 서인으로 넘어갔다. 소위 1680년, 숙종 6년의 경신환국이라는 정치적 격변 속에 일어난 일이(었)였다.

7) 번 기사는 숙종 2년 2월 8일의 기록으로 '서얼 허통과 백관의 반록 및 김성일의 증시 문제를 논의.'한 내용이다. 여기에서도 율곡의 서얼 관련 이야기가 언급된다. 이날 경연의 자리에 먼저 윤휴가 이렇게 말했다.

"서얼(庶孽)은 (국가에) 돈을 바친 뒤에 허통(許通, 과거 응시나 관직의 진출 및 승진 등에 적용된 제한을 풀어주는 것)하는 것이 예(例)입니다. 이번 무과에는 허통하지 아니한 자가 속여서 참여한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조사해서 뽑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참작해서 국가에 바칠 돈을 결정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때 윤휴는 영향력이 매우 큰 남인의 영수였다. 송시열과 예송논쟁에서 승리하여 왕통의 권위를 바로잡는데 큰 공을 세웠다. 윤휴의 말은 임금도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윤휴에 이어서 영의정 허적이 임금에게 이렇게 말했다.

"서얼을 막는 것은 우리나라의 그릇된 인습입니다. 선조 때의 명신(名臣) 이이가 서얼을 벼슬길에 통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풍속을 갑자기 바꾸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 대가로 돈을 받고 허통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허통하는 이 일은 지금 갑자기 의논하기 어려우나, (서얼 여부를) 속여서 무과에 참여한 자에게는 제값을 받는 것이 옳습니다."

윤휴와 허적의 제안을 듣고 숙종 임금은 그대로 따랐다. 그런데 허적은 아들 허견이 바로 서얼 신분이었기 때문에 서얼의 제도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이 많았다.
앞서 숙종 1년(1675년) 7월 9일 자 기록에 이러한 대화가 나온다.

홍우원: 옛사람이 이르기를 '어진이를 세우는 데는 일정한 방향이 없다.' 하였습니다. 서얼엔들 어찌 인재가 없겠습니까? 김수홍의 상소가 옳습니다.
이무: 국초에는 서얼로서 홍문관 정자(弘文館正字)까지 된 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락 연간(永樂年間, 1403년~1424년)에 막았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반드시 재주 있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윤휴: 유자광(柳子光)이 서얼로 사화(史禍)를 얽어 만들었기 때문에 그 뒤부터 막았습니다. 이제 만일 벼슬길을 터주도록 허락하시면, 오랫동안 막혔던 기운이 펴질 것입니다. 서얼은 한편으로는 사대부여서 하천(下賤, 신분이 낮고 천한 사람)과는 같지 아니합니다. 양민 출신의 첩에서 난 자는 융통하여 쓰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기록을 남긴 사관은 "이무가 또 소매에서 한 장의 종이를 내어 올렸다. 그 가운데의 한 조목이 곧 서얼을 통용하자는 일이었다. …… 윤휴·이무·홍우원·김수홍이 허적의 환심을 사려고 이렇게 힘써 의논을 한 것이

다."라고 덧붙였다. 임금을 면담하기 전에 이들은 서얼의 융통과 관련하여 미리 의견을 맞춘 것이다. 물론 이는 사관의 말대로 서얼 아들을 둔 허견을 염두에 두고 영의정 허적에게 잘 보이려는 의도가 강했다.

8) 번 기사는 숙종 3년 5월 14일의 기록으로 참찬관 유명천이 율곡의 이기설을 잘못 말한 일에 대한 것이다. 이날 강연에서 유명천(柳命天)은 퇴계 이황과 율곡의 이기설(理氣說)에 관하여 논했다.

"이황은 '기가 발하여 리가 따르는 것이다(氣發而理隨).'고 했습니다. 이는 맹자(孟子)의 말과 서로 부합됩니다. 이이는 '이와 기가 함께 발한다(理氣互發).'고 했는데, 이는 고자(告子)의 말에 가까운 것입니다."

유명천은 1651년(효종 2년)에 사마시에 합격하여 진사가 된 인물이다. 1672년(현종 13년) 별시문과에 갑과로 급제하였으며 정언·지평 등을 역임하였고, 1675년(숙종 1년)에는 이조좌랑이 되었으며, 이듬해에는 대사간·대사성을 지냈으니 성리학에 관한 지식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는 인물이었다. 그런데 이기론을 임금에게 설명하면서 퇴계의 것과 율곡의 것을 바꿔서 설명했다.

이에 사관은 이렇게 평을 하였다.

"대개 이황은 일찍이 '리가 발하니 기가 따르게 되고, 기가 발하니 이가 타는 것이라.'는 말을 주장했고, 이이는 일찍이 '발하는 것은 기이고, 발하게 하는 것은 리이다. 리와 기가 어찌 함께 발하는가?'라고 하여 이이는 성혼과 논변하기를 거의 수천 마디의 말을 했었다. 지금 유명천이 단지 이이를 공격하기에만 급급하여, 도리어 이황의 말을 이이의 말로 여기며 그만 고자의 말에 가까운 것이라고 하여, 자신이 이황을 모욕하게 되는 것임을 깨닫지 못했으니, 그의 거칠고 두서없는 생각을 드러낸 상황이 진실로 우습기만 하였다."

남인의 입장에서 율곡의 이기론을 비판하고 이황의 이기론을 감싸려고 한 것이 임금에게 그만 거꾸로 소개한 것이다. 맹자의 성선설과 대립하면서 인간의 본성은 '선도 없고 악도 없다,' 혹은 '인간의 본성은 악하지만 교정하여 선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 고자는 조선에서는 이단 취급을 받으며 평가 절하된 사상가였다. 이를 율곡에 빗대서 비판하려고 한 것이 거꾸로 퇴계를 비판하게 된 것이다. 서인 측 사관은 이러한 실수를 기록에 남겨 남인들의 율곡에 대한 비판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인가를 드러내고자 했던 것 같다.

이날 경연에 대한 내용은 유명천의 이기론 관련 이야기밖에는 없다. 유명천이 잘못 말한 이기론에 대해서 숙종은 어떤 반응을 보였고, 다른 신하들은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 혹은 이 문제와 관련해 별도의 논의가 있었는지도 알 수 없다. 확실한 것

은 남인 관료의 이기론에 대한 잘못된 발언과 서인 측 사관의 지적이다.

필자 생각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경연장에서는 누구도 잘못을 바로잡아주지 않아서 사관이 기록으로 남긴 것은 아닐까 추측한다. 사실 이기론의 문제는 왕권의 행사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다. 퇴계가 리와 기가 호발한다고 하였을 때, 리를 임금, 기를 신하로 대체하면 임금과 신하는 어느 쪽이든지 정치적 행위를 발동할 수 있다는 뜻이다. 기가 발하면 리가 그것을 탄다고 주장한 율곡은 그렇지 않다, 임금은 스스로 정치행위를 발동할 수 없고 신하들이 발동하는 행위에 임금은 편승할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왕권을 최대한 인정하려는 남인과 왕권이라도 제한이 있다고 보는 서인의 정치적 차이가 바로 이 이기론에서 출발한다. 그런데 이러한 철학 사상적인 문제에 대해서 남인 관료들은 아무래도 민감하지 않았던 것 같다. 이런 문제는 퇴계와 율곡과의 관계와도 유사하다. 율곡은 대학자 퇴계를 닮기 위해서, 그리고 그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상적인 노력을 많이 했다. 말하자면 유학 사상가로서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퇴계 사상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 허점을 잘 파악했다. 반면에 퇴계는 이미 원숙한 유학자로 율곡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없었다. 물론 율곡은 당시 퇴계가 관심을 가질만한 그런 사상을 제출한 것도 아니었다. 퇴계가 율곡 사상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은 당연하다. 이는 퇴계를 지지하는 남인들이 서인이 지지하는 율곡 사상을 잘 모른다는 문제로 연결되는 것 같다.

서인이라고 하는 당파의 집단적인 정체성은 동인이 있었기 때문에 형성된 것이다. 이 반대상황도 이야기할 수 있으나 동인은 처음에 퇴계와 남명 조식(曺植)이라고 하는 걸출한 두 유학자가 구심에 있었다. 반면에 서인은 아직 그런 유학자가 없었다. 그래서 그러한 유학자들을 만들어 낸 과정이 서인 세력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나중에 동인의 주 세력이 남인으로 바뀐 뒤에도 마찬가지였다. 남인과 대치하면서 서인 집단은 집단으로서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상적인 모색을 하였다. 그러한 사상적인 모색의 원점은 당연하지만 율곡의 이기론과 심성론 등 율곡 철학이었다. 철학과 정치 그리고 제도를 어떻게 연결하여 서인의 정체성을 찾을 것인가, 자칫 왕권과 대립될 수 있는, 위험한 철학적 문제를 어떻게 현실에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계속 서인 정치가들을 긴장하게 만들었던 것 같다. 그래서 서인 측 사관은 유명천의 이기론 발언에 민감했다고 생각된다.

반면에 동인과 남인 집단은 임금이라는 최고 권력자를 추켜세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다. 퇴계의 이기론이 바로 그러한 왕권 중심의 입장을 뒷받침한다. 또 퇴계가 유학자로서 율곡의 대선배로 정통 유학의 중심을 선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인들 역시 자연히 그러한 위치에 설 수 있어 상대적으로 서인들보다는 사상적인 긴장감이 느슨하였던 것 같다. 그래서 유명천처럼 남인 관료들이 이기론에 대해서 무감각했던 것은 아닌지 생각된다. 그러한 상황이 이날 유명천의 발언으로 드러난 것을 아닐까 생각해 본다.

9) 숙종 4년 8월 13일의 '대신과 비변사의 여러 신하를 인견하다.'는 기록은 율곡 사상의 기본 원칙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날 숙종은 여러 신하를 불러 이러저러한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판윤 이원정이 관학에서 학생들이 자리에 앉는 순서에 대해서 물었다.

"관학(館學, 성균관과 사부학당)의 옛 제도는 방차(榜次, 과거에 급제한 차례 혹은 방목이나 시험에 합격한 순서)를 따라 차례로 앉았습니다. 선조 때에 이이가 서치(序齒, 나이순)로 하도록 요청하였다가 행하지 못하였고, 갑진년(1664, 현종 5년)에 민정중이 대사성이 되어 처음으로 나이순으로 하는 방법을 행하였다가 조정에서 정한 것이 아니니 옛 방식을 회복함이 마땅할 것 같다고 하여, 과거 급제 서열로 앉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허적과 권대운은 역시 과거에 급제한 서열을 따름이 마땅하다고 말하여 임금이 윤허하였다. 민정중은 서인 측 노론 인사이다. 그가 율곡이 제안한 방식을 따라 나이 순서로 학생들을 앉는 순서를 정하였는데 남인 관료들이 이를 다시 뒤집은 것이다. 율곡이 나이 순서를 선호한 것은 그것이 과거 합격 순서나 방목 순서 혹은 신분 서열보다 좀 더 보편적이기 때문이다. 오륜 중 하나인 '장유유서(長幼有序)', 즉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차례와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은 유교 도덕에 있어서 매우 본질적인 것이다.

8월 13일 이원정이 임금에게 건의한 내용 안에는 서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만 자리 앉는 순서 이면에는 서얼 차별의 문제도 있었다. 나중에 정조 시대에 들어서 다시 이 문제가 거론된다.

이덕무가 정조를 수행하고 성균관에 갔을 때의 일이다. 이날 정조는 성균관에서 유생들에게 시험을 봐서 실력이 뛰어난 자를 뽑을 예정이었다. 당시 성균관에서 서얼 학생들은 정실 자식들과 구별하여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다.

정조: (성균관 유생들을 돌아보다가) 이 가운데 서얼이 있는가?

대사상 유당(柳戇): 없습니다.

정조: 이 중에 어찌 서얼 학생이 없는가? 서얼이라고 하여 차별하는 것이 아닌가? 성균관에서 서얼을 차별하여 남쪽 구석에 앉힌다는 말을 들었다. 주나라 때에는 평민의 자제 중에서 준수한 자도 모두 태학(太學)에 입학하여 왕공, 귀인의 자제들과 함께 공부하게 했다. 지체는 비록 낮으나 같은 양반인데, 어찌 차별하여 한쪽에 앉혀서 동렬에 끼지 못하게 하는가?

유당: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서얼을 동렬에 들지 못하게 하는 것은『예경』에도 없는 일인데, 이러한 차별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는 대사성이 유생들의 원망을 들을까 봐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이 마땅히 유생들을 타일러 그 같은 짓을 못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조: 적자와 서자를 구분하는 것은 집안의 제사 때에나 할 일이지, 성균관에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성균관은 나이를 중하게 여기는 곳이니 차별을 엄금하라.

임금이 성균관을 떠나자 성균관 유생들은 일제히 임금의 조치에 반대하고 시위를 했다. 대사성 유당이 임금의 명령을 거역하는가 하고 야단을 치자 일제히 물러갔다. 유당은 시위를 하는 자들은 모조리 과거 시험 금지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그제야 유생들은 성균관으로 돌아왔다. 이후로도 며칠 동안 성균관 일대가 떠들썩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정조가 이덕무에게 물었다.

정조: 성균관에서 나이순으로 앉는 것이 비로소 실행된다고 한다. 오랫동안 억울한 생각을 품고 있던 서얼 학생들의 마음이 풀렸는가? 대체 형편이 어떠한가?

이덕무: 제가 규장각에 출입하느라 사람을 만날 기회가 적어서 자세히 알지 못하나 서얼들에게 대강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들이 죄 없이 차별을 받았으나 이제 성세(盛世)를 만나 성균관에 앉는 순서가 하루아침에 시정되어 기쁘고 감격해하고 있습니다. 서로 만나면 '비로소 사람대접을 받게 되었다.'라고 한답니다. 또 '오랫동안 가뭄이 들었으므로 임금께서 걱정하여 이러한 선정을 베푸셨으니, 하늘이 감동하여 반드시 단비를 내릴 것이다.'라면서 모두 기뻐했습니다. 서치법(序齒法, 나이순으로 하는 법)을 하교하신 뒤 이틀 만에 단비가 내리다가 큰 비가 오자, 서로 축하하며 '이것은 서치우(序齒雨)다.'라고 하였다니, 이를 미루어 사정을 알 수 있습니다.

정조: 이들의 기뻐함이 이같이 크단 말인가?

이덕무: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서로 감탄하여 말하기를 '우리의 조상 중에 이런 좋은 일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계신다. 옛사람들도 이런 좋은 일이 있으면 집에서 제사를 지내어 선대에 고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말이 있으니, 글을 지어 제사 지내고 이를 고할 만하다.'고 하니, 지극히 감격하였음을 여기서 또 알 수 있습니다.

정조: 나이순으로 앉는 것은 선왕(영조)께서 엄히 명하신 것인데, 즉시 고치지 않으니 진실로 이상하고 놀라운 일이다. 차후로 다시 바뀌지는 않겠는가?

이덕무: 도리에 합당한 일이므로 아마 이 제도가 무너질 염려는 없을 듯합니다.

정조: 내가 글로 선포하지 않은 것은 자칫 일이 너무 커질까 하여 대사성을 단단히 타일러 행하게 한 것이다. 그대도 소견이 있으면 말해 보라.

이덕무: 서얼이 사람의 서열에 끼지 못하는 것은 천하에 가장 원통한 일입니다.

정조: 항상 이들을 마음속으로 측은하게 여긴 지 오래다. 그러나 청환현직(淸宦顯職, 청직과 높은 직위)까지 소통시켜서 구애받는 바가 없게 하는 것은 제도를 개혁하는 데 관계되는 것이므로 쉽게 조치할 수가 없었다. 선조(영조)께서 서얼에게 대직(臺職)을 허락하신 것은 참으로 성덕에서 나온 일인데, 세상에서는 그들을 청환현직으로 대우하지 않고 가(假)자를 붙여서 가장령(假掌令), 가지평(假持平)이라고 부르니 습속이 이렇게 굳어져 고치기가 어렵게 되었다.

4. 경신환국과 율곡의 문묘 종사

숙종이 서인을 배제하고 남인에게 정권을 넘기면서 그들의 집권이 언제고 계속될 것 같았지만 숙종 6년(1680년)에 상황은 급변했다. 남인 관료들을 이끌던 허적이 큰 실수를 저질렀다.

허적은 그동안 영의정을 역임하면서 상평통보를 주조하여 나라 재정을 관리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 또 서인의 영수 송시열을 조정에서 축출한 뒤 윤선도, 윤휴, 허목과는 달리 온건론을 폈다. 위기에 처한 송시열을 사지에서 구해내는데 그는 큰 공을 이루어 서인들의 호감을 끌기도 했다.

1680년(숙종 6년) 3월 19일, 숙종이 70세가 된 허적에게 하사품으로 안석과 지팡이 그리고 음악을 내렸다. 4일 뒤 이조판서 이원정은 허적에게 미곡과 포목도 함께 내리도록 건의하여 임금은 흔쾌히 허락하였다. 이원정은 예송논쟁 때 활약한 남인 측 주요 인사 중 한 사람이다.

그런데 허적은 같은 달 자신의 할아버지 허잠이 충정공의 시호를 받은 것을 기념하기 위한 연회를 위해 궁궐의 천막을 몰래 가져가 썼다. 임금이 허락하기 전이었는데 이 일이 발각되었다. 이러한 기회를 서인 측은 놓치지 않았다. 허적의 서자 허견이 역모를 획책했다고 숙종에게 보고하였다. 이일은 나중에 허위로 밝혀졌으나, 숙종은 당시 남인을 지지했던 마음을 거두고 허적 일당에게 사형을 명했다. 이때 남인계 관료 윤휴도 함께 사형당했다. 남인 지도자 허목도 조정에서 축출된 뒤 곧바로 사망을 하여 남인 정권은 순식간에 몰락하였다. 이것이 남인에서 서인으로 정권이 교체된 경신환국이다.

이처럼 정권 실세가 서인으로 바뀌면서 조정안에서 율곡이나 율곡의 사상 혹은 저작물을 언급하는 일이 많아졌다.

예를 들면 같은 해(숙종 6년) 7월 24일, 홍문관의 관원 오도일이 율곡의 『성학집요』를 숙종에게 권했다. 그는 "『성학집요』는 곧 선정신(先正臣) 이이가 지어 선조에게 올린 것으로, 그 글이 제왕의 학문에 가장 절실하므로, 선조께서도 그 글이 정치하는 방법에 보탬이 있다고 매양 일컬었습니다."라고 하면서 한가한 때 읽어보면 반드시 많은 도움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임금은 이러한 건의를 받아 홍문관에 명하여 베껴서 올리라고 하였다.

오도일은 8월 3일에도 숙종에게 "진덕수가 지은 『대학연의(大學衍義)』는 요점 정리가 모자랍니다. 이이가 『대학』의 뜻을 유추하여 해석하고 경적(經籍)을 모아 간추려 책 하나를 지었으니, 곧 『성학집요(聖學輯要)』입니다."라고 『성학집요』의 제작 과정을 소개하고 『성학집요』가 학문하는 규모와 나라 다스리는 제도를 조목별로 나누고 적절한 내용이 모두 갖추어졌는데, 글이 번잡하지도 아니하고 간략하지도 아니하니, 진실로 제왕(帝王)이 정도(正道)에 들어가는 본보기이며 정치를 하는 지침

서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11월 3일에는 부수찬 송광연이 임금의 상례 의복에 관한 상소를 올리면서 율곡이 정한 졸곡 후의 백의관대(白衣冠帶) 제도를 언급하였다. 그는 율곡이 "송나라 효종(孝宗)의 옛 제도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조가 이를 따르게 되어 마침내 우리나라의 예문이 되었고, 인선왕후(仁宣王后) 상사 때에도 이를 준용(遵用)했는데, 유독 이번에는 이미 시행한 예제(禮制)를 쓰지 않고 『오례의』의 예문을 쓰자는 것은 필시 대행 왕비의 상사는 인선왕후의 상사와는 다르다고 하여 이렇게 시행을 달리하는 모양입니다."라고 하면서 상례 의복에 재검토를 제안하였다.

조정에서 서인 관료들의 발언이나 활동도 이전보다 훨씬 자유스러워지고, 송시열은 유배지에서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갔으나 그의 영향력은 다시 회복되었다. 정계에 대한 발언권도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해졌다.

숙종 7년 1월 13일 그는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의 자격으로 다음과 같이 대동법의 폐단을 임금에게 다음과 같이 고했다.

"국가에서 백성에게 신의를 잃은 것이 많은데, 그 가운데에서도 대동 면포(大同綿布)를 거두어들이는 것이 제일 심합니다. 당초에 대동법을 창설할 때는 고 상신(相臣) 김육(金堉)이 규례를 정하기를, '쌀은 먹을 수 있는 것이면 그만이고, 면포는 가늘기가 6승이고 길이가 35척이다.' 하고, 견본이 되는 면포를 각 고을에 내려보냈는데, 뒤에 와서 점차 제도의 효과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각 고을에서 규정에 맞는 면포를 바치지만 서울에 이르면 서리들이 그것을 모두 질 나쁜 제품으로 바꾸어 바친다고 하였다. 그 때문에 백성은 피를 빼앗기고 아전은 배를 두드린다고 하며 율곡이 일찍이 '우리나라는 서리 때문에 망할 것입니다.'라고 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임금이 이점을 유념하기를 요청했다.

이러한 보고를 받고 3일 뒤에 숙종은 송시열을 불러 면포 징수 문제를 논하고 해당 관청에서 폐단을 고치도록 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세금 문제뿐만 아니라 군사의 폐단과 군역 징발의 대상이 되는 양민의 수가 줄어드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송시열은 율곡이 이전에 종이 양민의 딸을 처로 얻을 경우 아버지를 따라 종이 되는 것을 고쳐 어머니를 따라 양민이 되도록 하면 양민의 숫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제안을 하기도 하였다.

같은 달 19일에도 평안감사 유상운(柳尙運)의 보고를 받고 율곡의 양천 종모법, 즉 천민이 아이를 낳으면 어머니 신분을 따른다는 법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유상운의 보고에 따르면 기유년(1669년, 현종 10년) 이후에 공천(公賤)이나 사천(私賤)이 양민의 딸에게 장가들어 자식을 낳을 경우 시행령에 따라 양인이 되었는데, 나중에 조정에서 그 시행령을 거두어서 도로 천민으로 삼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

유상운은 "그 사람들이 원통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조정에서 신의를 잃는 것으로

서 이보다 큰 것이 없습니다. 양인(良人)은 어머니를 따른다는 의논이 선정신(先正臣) 이이로부터 비롯되어 기유년에 송시열이 아뢴 바로써 대신에게 의논하여 결정하고, 폐단 없이 시행해 왔는데, 을묘년(1675년, 숙종 원년)에 이원정(李元禎)이 형조 판서가 되어 갑자기 취소하도록 요청하였던 것이니, 지극히 한심합니다."라고 하여 다시 양천 종모법을 시행하도록 요청하였다. 남인 집권시기에 양천 종모법을 취소해던 것이다. 숙종은 다시 회복하도록 하였으나 1689년(숙종 15년) 기사환국으로 남인이 다시 정권을 잡자 남인의 말을 들어 양천 종모법을 또 취소하였다.

당시 숙종은 세자빈으로 궁중에 들어와 왕비가 된 인경왕후가 천연두로 사망한 뒤 새로운 부인을 찾고 있었다. 이에 숙종 7년 3월 4일 송시열은 상소문을 올려 중전 간택에 신중할 것을 건의하면서 율곡의 『만언봉사』를 이렇게 소개했다.

"전하께서는 주자가 진관(陳瓘)의 서첩(書帖)에 쓴 발문(跋文)의 말과 문성공 이이의가 『만언봉사』에서 진술한 말을 신하들에게 살펴보게 하시고, 이를 채택하여 시행하소서. 그러면 이른바 호연지기(浩然之氣)란 것이 전하의 성학(聖學)이 어찌 천지 사이에 더욱 채워지지 아니하겠으며, 이른바 만복(萬福)의 근원이란 것도 또한 어찌 천만세(千萬世)에 영구히 미치지 아니하겠습니까?"

주자가 쓴 발문의 말이란 이욕과 의리 사이에서 이욕을 버리고 의리에 따라 행동하라는 말을 뜻한다. 율곡이 『만언봉사』에서 진수란 말은 여색을 경계하라는 말을 지칭한다. 율곡의 가르침을 다시 상기시키는 건의였다.

이렇게 조정에서 서인의 발언권이 강화되고 송시열 등 서인 원로들의 궁중 출입이 잦아지면서 서인의 구심점이 되는 율곡과 우계의 문묘 종사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1680년(숙종 6년) 8월에 황해도 생원 윤하주(尹夏柱) 등이 율곡과 우계에 대한 문묘 종사를 요구하는 상소문을 3차례에 걸쳐 올렸다. 임금은 선대 조정에서 시행하지 않았던 것이라면서 거부하였다. 하지만 1681년(숙종 7) 9월 18일에 이연보 등 성균관 소속의 팔도 유생 500여 명이 또다시 율곡 등에 대한 문묘 종사를 청했다. 이들은 동시에 송나라 조정의 3현, 즉 양시(楊時)·나종언(羅從彦)·이동(李侗) 등에 대한 문묘 종사도 요청하였다. 숙종은 이러한 요구에도 "가볍게 허락하기 어렵다."는 답을 내놓았다.

다음 날, 경연의 자리에서 강론과 토론 등을 담당하는 검토관 송광연(宋光淵)이 이렇게 요청하였다.

"유생(儒生)들의 상소 내용대로 문묘 종사의 전례를 빨리 거행하도록 하소서."

임금이 말했다.

“마땅히 잘 생각해서 처리해야 한다.”

송광연이 또 이렇게 요청했다.

“영중추부사 송시열이 올린『심경석의(心經釋疑)』신본(新本)을 즉시 인쇄하게 하여 경연에 참고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가 올린 상주문을 그 책 앞에다 붙여 함께 출간하도록 해주십시오.”

이러한 요청에 대해서 임금이 답했다.

“그(송시열)가 수정한 책자와 상주문의 내용을 보니, 명백하여 잘 깨달을 수 있었다. 이이가 편찬한『성학집요』도 그가 올린 상주문을 붙여서 간행하였으니, 이 글도 그렇게 하도록 하라.”

이번에는 경연청 지사 여성제(呂聖齊)가 이렇게 말했다.

“9일에 있을 반시(泮試, 성균관에서 보는 한성 초기)를 다음날로 미뤄서 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유생들이 지금 또 문묘 종사에 관한 상소를 하려고 하면서 말하기를 ‘상소에서 건의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면 구태여 시험에 나아가지 않겠다.’고들 합니다. 그들이 만약에 시험을 치르지 않으면 그것도 곤란합니다. 그러니 차라리 뒤로 시험을 미뤄서 행하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이에 임금이 말하기를 “오늘 만약 다시 상소문을 올리면, 내가 비답을 내린 뒤에 가서 응시할 수 있을 것이니, 일부러 시험을 미뤄서 행할 필요가 없다.” 하였다. 생각해보면 임금의 뜻은 유생들이 상소문을 또 올리라는 것이었다. 그러면 임금은 그것을 기다렸다가 허락하려고 한 것이었다.

숙종은 9월 19일 이연보 등이 전날에 이어서 다시 상소를 하자 드디어 담당 판서와 대신들에게 율곡과 우계의 문묘 종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당일 유생들이 다시 상소문을 올리자 임금을 이렇게 답을 하였다.

“양현(兩賢)의 도덕과 학문은 실로 한 세대에서 우러러 사모하며 사림의 모범이 되니, 문묘에 종사하는 것을 누가 불가(不可)하다고 말하겠는가? 그러나 대대로 조정에서 일찍이 윤허하지 않았으며 또 내가 과단성 있게 처리하지 못하고 미루었던 것은 모두 신중하게 하려는 뜻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많은 인사들의 건의가 오

래도록 계속되었고, 또한 간절해서 끝내 억지로 거부하기 어려우니, 그것을 해당 관서가 대신들에게 물어서 특별히 오현(五賢·율곡·우계와 중국 유학자 3인)을 종사하는 건의를 윤허할 수 있도록 하라.”

이에 김수항·김수흥·정지화·민정중·이상진 등 각 대신에게 문묘 종사의 의견을 물었다. 이들 모두가 종사에 찬성 의견을 냈다. 그래서 임금이 명하기를, “대신들의 의논이 모두 이와 같으니, 지난번 상소한 대로 문묘에 올려서 배향하도록 비답한다.” 라고 하였다.

이전의 왕들이 무수히 많은 문묘 종사 요청을 계속 거절한 것을 생각해 보면, 숙종의 이번 허락은 의외로 시원스럽고 호탕한 것이었다. 당시 영의정 허적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남인들을 모조리 궁중에서 몰아낸 것을 생각해 보면, 숙종의 선선한 허락이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새롭게 불러들인 서인 관료들에 대해서 그동안 미안했던 마음의 표시였고 앞으로 기대한다는 일종의 선물이었던 셈이다.

결국 율곡과 우계 성혼, 그리고 송나라의 세 선현(양시・나종언・이동)에 대한 문묘 종사가 결정되었다. 실제로 이들이 문묘에 종사된 것은 그 이듬해(1682년, 숙종 8년) 5월 20일이었다. 이로써 60년 가까이 끌어오던 이이와 성혼의 문묘 종사가 일단락되었다.

5. 남인의 문묘 종사 반대

1681년 9월 18일에 율곡과 우계의 문묘 종사가 결정되었는데 10일도 지나지 않은 9월 27일에 이러한 문묘 종사를 반대한다는 상소문이 임금에게 전달되었다. 유생 박성의 등 60여 명이 올린 상소였다. 이들은 이렇게 주장했다.

"인조 13년(1635년)에 생원 송시형 등이 처음으로 두 신하를 종사해야 한다는 주청을 발의했습니다. 그때 성상은 '도덕이 높지 못하고 결점과 비방이 있다.'고 하교하시면서 허락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진실로 만세토록 바꿀 수 없는 명령입니다. 신들이 일찍이 이이의 사직 상소문을 보았는데 이르기를, '일찍이 자모(慈母)의 상을 당하여 허망된 것으로 슬픔을 막으려고 마침내 석씨(釋氏, 불교)의 가르침에 빠져 깊은 산속으로 도망하여 들어갔지만, 마음을 다 쏟아도 더러움을 씻기에는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또 선조 임금께서 성혼을 처벌하는 하교에 이르기를, '재신(宰臣, 관원을 통솔하는 관리)으로서 경기도의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도 임금의 피난 변고를 듣고 달려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임금의 가마가 그가 살고 있는 곳을 지나갈 때에도 나와서 알현하지 않(았)습니다. 고금 천하에 어찌 군부(君父)를 버리고 국난에 달려가지 않고서도 하늘의 처벌을 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상소문을 받아 읽고 숙종은 주동자 박성의의 과거 응시를 정지시키도록 하명하였다. 다음날 경연의 자리에서 참찬관 이유(李濡) 등이 문묘 종사를 반대하는 박성의 등의 주장이 잘못된 점을 논했다. 먼저 율곡이 불교에 일시적으로 입문을 한 것은 주자도 그런 일이 있었으므로 잘못이 아니라고 하였으며 우계 성혼의 경우는 간신들이 거짓으로 무함을 한 것이었다고 임금에게 보고했다. 임금은 그러한 사항을 자신도 잘 알고 있으며 그들의 말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며 문묘 종사 결정에 변함이 없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이날 임금은 박성의 무리를 비호한 예조 정랑 유정화에 대해서 파면을 명하였다.

같은 달 9월 30일에는 부응교(副應敎) 송광연(宋光淵)·교리(校理) 이돈(李墩)· 부교리(副校理) 신엽(申曄) 등이 집단으로 보고서를 올려 문묘 종사 반대 상소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 장문의 의견을 올렸다. 이러한 보고서에 대해 임금은 이렇게 답했다.

"두 현신(賢臣, 율곡과 우계)의 도덕과 학문의 고명함과 박성의(朴性義) 등이 음험하고 어긋나게 선정(先正)을 추잡하게 욕하는 말을 내가 이미 상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반대 의견을 엄중하게 끊는다는 뜻을 분명히 유시하였다. 이제 (내가 이 결정을) 굳게 유지하면서 흔들리지 않는다면 저절로 교활하고 간사한 말을 방자하게 하지 않을 것이니, 그들에게 죄를 더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10월 1일의 경연 자리에서 서인 관료들은 박성의를 엄하게 징계해야 한다는 의견을 다시 제출했다. 그러나 임금은 “이미 박성의의 과거 응시를 정지시키도록 명하였는데, 어찌 반드시 죄를 더해야 하겠는가?”라고 하며 더 이상의 징계를 반대했다. 하지만 박성의를 변호하고 그의 죄를 벗게 해 주려는 정언 이징귀(李徵龜)에 대해서는 홍문관 관리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파직을 명하였다.

이 자리에서 송광연은 “이이가 정한 학교 모범(學校模範) 16개 조를 게시하여 오늘날 학교의 규범으로 삼으소서.”라고 율곡의 『학교모범』을 정식 규범으로 삼을 것을 건의하였는데, 임금은 이를 허락했다.

10월 29일 유생 조신건(趙信乾) 등이 또 율곡과 우계를 비판하는 상소문을 올렸다. 임금은 선조 시대에 두 현신에 대해 비록 문묘 종사를 허락하지는 않았으나 본래 융성한 예의를 갖추어 대우하였는데 어찌 감히 선조임금이 문묘 종사를 거부한 것을 핑계 대고 증거로 삼아 근거 없이 헐뜯기를 이렇게 심하게 할 수 있는가 한탄하고 “통렬히 징계하지 않을 수 없다. 조신건을 멀리 귀양 보내도록 하라.”라고 전교를 내렸다.

이러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이해 12월 1일에는 영남 유생들 수백 명이 서울로 올라와 상소문을 올려 율곡 등의 문묘 종사를 반대하였다. 숙종은 이에 앞으로 방자하게 도리에 어긋나는 의논으로 선현을 거짓으로 욕하는 사례가 있거나, 상소문을 올려 법을 무시하고 폐단을 일으키는 자는 엄중하게 법률로써 바로잡는다고 엄명하였다.

이렇게 어수선한 분위 속에 송시열은 상소문을 올려 “문성공(율곡)은 먼저 병이 들었다가 뒤에 병이 나은 사람입니다. 더구나 그가 선학(禪學)을 탐했을 때의 나이는 20세 이전이었으니, 더욱이 누가 되기에는 부족합니다.”라고 변호하고 이번 기회에 문원공(文元公) 김장생(金長生)도 문묘에 종사해 줄 것을 이렇게 요청하였다.

“고 문원공 김장생은 정자(程子)와 주자의 학통을 문성공 이이에게서 얻었습니다. 이미 그 학설을 모두 물려받아 마음에 징험하고 몸에 체득한 연후에 주자께서 한스러워하던 바를 개탄하고, 만년에는 오로지 예서(禮書)에다 뜻을 두었습니다. (중략) 문원공이 편찬한 『상례비요(喪禮備要)』·『가례집람(家禮集覽)』·『의례문해(疑禮問解)』·『예기기의(禮記記疑)』 등의 책은 매우 세밀하게 분석하여 물을 담아도 새지 않을 정도입니다. 국가의 전장(典章)과 사가(私家)의 경례(經禮)와 변례(變禮)에 모두 절충(折衷)하는 바가 있되, 한결같이 정자와 주자의 학설을 주장하였기에 비록 다른 길로 추향 하는 집안이라도 준용(遵用) 하지 않는 이가 없었으니, 그 공로가 많다고 말할 만합니다. 대저 정중(鄭衆)과 두자춘(杜子春)은 단지 『주례(周禮)』의 글을 주석한 공만으로도 문묘에 배향되었는데, 문원공은 동방의 예가(禮家)를 대성하였는데 어찌 어렵겠습니까?”

숙종은 이러한 요청에 대해서 건의한 사항을 마음에 두고 깊이 생각해 보겠다고 답을 내렸다.

다음 해 (숙종 8년, 1682년) 1월 29일에도 경상도에 사는 진사 고세장 등 수백 명이 다시 율곡과 우계의 문묘 배향에 반대하는 상소문을 올렸다. 그들은 이 두 인물이 문묘에 모시기에는 합당하지 않다고 논하였는데, 이런 이들의 건의에 대해서 도승지(都承旨) 이익상(李翊相) 등은 "(이들 유생들이 율곡 등을) 미워하는 마음만을 품고 이미 정해진 예(禮)를 막으려 합니다. 이것은 모두가 나라의 기강이 해이하고 인심이 맑지 못한 탓이니, 물리쳐 끊어서 치우치고 어지러운 말이 감히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해야 하겠습니다."라고 임금에게 권했다. 이에 숙종은 "공의(公議)가 정해진 뒤에도 이들이 국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잇따라 상소하여 조금도 꺼림 없이 유현(儒賢, 율곡과 우계)을 헐뜯으니, 그 마음 둔 것이 더욱 지극히 한탄스럽다. 상소를 올린 대표 고세장(高世章)은 멀리 귀양 보내라."라고 하명을 하였다.

이후로 율곡과 우계의 문묘 종사에 반대하는 의견이 잦아들었다.

이해 5월 20일에 예조에서 절차를 갖추어 대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율곡과 우계의 문묘 종사를 거행하였다. 다음날에 문묘 종사 내용을 안팎에 교서를 반포하여 알리고 모든 관리들이 하례를 하였다. 임금은 교서에서 다음과 같이 선포를 하였다.

"문성공(文成公, 율곡)의 조예가 고명한 것은 태어날 때 해·달·별과 오악의 정기를 타고났으며, 문간공(文簡公, 성혼)의 품행이 돈독한 것은 학문이 가정에서 근본 한 것이니, 함께 공자 문하의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서 우뚝하게 우리나라의 모범이 되었다. 이기(理氣)와 성정(性情)에 대한 분별은 이미 지극하게 정밀하였고, 규모와 사업의 융성함은 더욱 광대한 지경에 이르렀다. 웅대한 말과 숭고한 의론은 성실한 군주에 대하는 정성이요, 탁월한 지식과 완전한 재능은 용감한 도를 맡은 용기였다. (중략)

장락백(將樂伯) 양시(楊時)·문질공(文質公) 나종언(羅從彦)·문정공(文靖公) 이동(李侗)·문숙공(文肅公) 황간(黃幹)·문성공(文成公) 이이(李珥)·문간공(文簡公) 성혼(成渾)을 동무(東廡)·서무(西廡)에 새로 배향하였다. 아! 도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은데, 사람이 어찌 멀고 가까움에 차이가 있겠는가? 일이 전대(前代)를 빛나게 함은 향하여 따르는 길을 능히 보여 주는 것이고, 유풍을 사방에 일어나게 함은 새로운 것을 일으키는 효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교시를 내리니, 마땅히 잘 알아야 할 것이다."

1683년(숙종 9년) 12월에 숙종의 어머니인 명성왕후가 승하하였다. 명성황후는 1680년 12월에 숙종이 부인을 사별하자 급히 서둘러 새로운 며느리를 찾았다. 당시 숙종은 궁녀로 일하는 장옥정, 즉 나중의 희빈 장씨에게 마음이 끌리고 있던 상태

였다. 그래서 명성왕후는 궁궐에서 장옥정을 내보내고 1681년(숙종 7년)에 민유중(閔維重, 1630년~1687년)의 딸을 왕비로 간택하여 맞아들였다. 이 부인이 인현왕후인데 당시 14세였으며 은진 송씨(恩津宋氏) 송준길(宋浚吉)의 외손녀였다. 민유중은 한성부 판윤을 지냈으며 당색은 서인, 노론이었으며 동춘 송준길과 우암 송시열의 제자였다.

이 무렵 서인은 각종 정책을 둘러싸고 내부 분열을 일으켜 송시열을 중심으로 하는 노론과 윤증(尹拯, 1629년~1714년)을 중심으로 하는 소론으로 갈라졌다. 노론은 대의명분을 중시했으며 민생안정과 자치 자강을 강조했다. 반면에 소론은 실리를 중시하고 적극적인 북방개척을 주장했다. 숙종은 이 두 파벌을 연립시켰으나 권력의 핵심을 장악한 것은 송시열의 노론이었다. 송시열은 왕실의 외척인 김석주·김만기·민정중과 연합하여 정치를 주도했다. 김석주(金錫胄, 1634년~1684년)는 명성왕후의 사촌 오빠이며, 김만기(金萬基, 1633년~1687년)는 숙종의 첫 번째 부인 인경왕후의 아버지고, 민정중은 새로 맞이한 인현왕후의 아버지 민유중의 친형이다.

6. 노론과 소론의 갈등

숙종 11년(1685년) 8월 24일 함경도 진사 주계(朱棨) 등 96인이 상소하여 윤증(尹拯)과 홍수주(洪受疇) 무리가 율곡을 모욕하며 사람들을 속인다는 주장을 하였다. 윤증은 서인에서 분당된 소론의 영수이다. 홍수주는 이전에 율곡이 불교에 입문한 적이 있다면서 '이는 이이의 한 점 흠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선(禪)에 물들었던 일에 이르러서는 과실(過失)이라 이르지 않을 수 없다.'고 율곡을 평한 적이 있었다.(『숙종실록』 16권, 숙종 11년 5월 26일 기사)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주계의 상소문은 이어서 소론의 최석정(崔錫鼎)·김홍복(金洪福)·심권(沈權)·유상재(柳尙載)·윤이도(尹以道) 등 관리들과 성균관의 유생 송징은(宋徵殷) 등을 지목하여 이들이 서로 무리를 지어서 속이며 율곡을 모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숙종은 이러한 상소문에 대해서 "문장 중 어떤 데는 타당한 점이 좀 모자라지만, 이들이 자세히 상소한 것을 요약한다면 선현(先賢, 율곡)을 높이고 사론(邪論)을 물리치는 주장 아닌 것이 없다. 그러니 내가 매우 가상(嘉尙)하게 여긴다."라고 하였다. 이즈음 노론과 소론의 갈등이 갈수록 커져서 이렇게 상소문을 통해 서로 비난하는 상황이 되었다.

한 달쯤 지나 9월 30일 송시열이 나서서 소론의 발언과 그 발언을 서로 두둔하는 행동을 비판하며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무마하기 위해서 아무 관련이 없는 김장생을 끌어들였다고 다음과 같이 상소문을 올렸다.

"가만히 듣건대 근자에 사헌부의 신하들이 상소하여, 이이가 머리를 깎았다는 말을 제기하면서 김장생을 끌어다가 증거로 삼았다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하건대 문성공 이이는 타고난 자질이 매우 높아서 나이 겨우 5, 6세에 이미 학문을 하는 방법을 알고, 열 살이 되어서는 경서를 모두 통달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성인의 도가 다만 이것뿐이겠는가?'하고는 이에 불교와 노자의 여러 서적을 두루 보았는데도 그 가운데서 가장 좋아했던 것이 『능엄경(楞嚴經)』 한 책이었습니다. 그것은 대개 그 책의 내용이 안으로는 심성(心性)을 말한 것이 십분 정미(精微)하였고, 밖으로는 천지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그 굉활함을 다 연구했기 때문이니, 만약 이이같이 식견이 높고 사리에 밝은 이가 아니었다면 어린 나이에 어찌 그것을 알아서 자세히 체험했겠습니까? (중략)"

이렇게 말하고 송시열은 사헌부의 신하들, 즉 소론의 관리들이 율곡이 과거에 불교에 입문한 것만을 말하고 나중에 그것을 버리고 돌아왔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으며, 즉 율곡을 비판만 하였으며, 율곡이 어렸을 때의 과실은 과실이라 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율곡이 머리를 깎았다는 것을 꼬집어 김장생까지 욕을 보이려고

하였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그들의 발언을 세상의 나쁜 사람들이 과장하여 이용한다면 세상을 위협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한데 너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송시열의 비판에 대해 숙종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문원공(文元公, 김장생)의 문집을 조용하게 살펴본 뒤에 마땅히 교서관(校書館)에 보내 문정공(文正公, 송시열)의 문집과 함께 똑같이 간행해서 나의 뜻을 표하겠다. 아! 슬프다. 세도(世道)를 생각하여 보니 근심하고 탄식함을 어찌 견디겠는가? 사람들의 마음이 나쁜 데 빠져서 의리가 어두워지고 막혔다. 홍수주와 같은 간사하고 아첨하는 무리들이 윤증(尹拯)을 위해 한편이 되어서 방자스럽게 상소를 올려 선현을 무욕(誣辱, 거짓으로 모욕함) 한 것이 끝이 없으니, 이는 실로 사문(斯文)의 죄인으로서 세도의 크나큰 변고이다. (중략) 그러니 목마른 자가 물을 찾듯 하는 나의 뜻을 본받아서 멀리하려는 마음을 빨리 돌려 속히 올라와서 경을 생각하는 나의 회포를 위로하라."

이보다 2년 전 송시열은 고령을 이유로 벼슬에서 물러나 정계에서 은퇴하고 청주의 화양동에 은거하였다. 신분으로는 봉조하(奉朝賀)였고 기로소 소속이었다. 이 당시 송시열은 자신의 제자인 김익훈이 거짓 사실을 날조하여 죄 없는 남인을 죽였다는 사실을 알고도 처벌을 외면하고 낙향했다. 서인 내부의 윤증 등 소장파들은 김익훈의 처벌을 주장하다 송시열처럼 미온적인 원로들에 실망하여 마침내 원로들과 결별하여 별도의 당파를 형성했었다.

이해(숙종 11년) 12월 16일 화양동에서 봉조하 송시열이 다시 상소문을 보내왔다. 거기에서 그는 조정에서 홍수주에 대한 처벌이 다소 지나친 면이 있다고 건의하였다.

"문성공 이이는 허봉(許篈) 등이 이이를 공격하다가 멀리 쫓겨났을 적에 속히 문간공 성혼과 더불어 서로 의논하여 죄를 너그럽게 해 주기를 청하였습니다. 대저 허봉 등이 범한 것은 지금의 홍수주에 비할 것이 아니었는데도 이이와 성혼은 오히려 이와 같이 하였습니다. (중략) 형벌을 쓰는 것이 과중하면 인정(仁政)에 누를 끼칠까 진실로 두렵습니다. 전하께서 방금 이이와 성혼의 도학을 숭상하여 장려하시는 까닭으로 감히 이로써 말을 합니다."

이러한 송시열의 상소문에 대해서 숙종은 "홍수주가 선정(先正, 율곡 등)을 무욕(誣辱)했던 죄는 관계되는 것이 작지 아니하니 변방으로 귀양 보낸 벌은 그것이 지나쳤는지를 나는 알지 못하겠다. 이어서 생각해 보건대, 이렇게 상황이 위급한 날을 당하여 넘어지는 형세를 붙들고 위태로운 판국을 바로잡는 책임을 경에게 부탁하고 싶은 바람이 있다. 경은 과인(寡人)의 지극히 생각하는 마음을 본받아서 제갈량이

국가의 일을 위하여 몸을 바치던 뜻과 같이 날이 따뜻하기를 기다려 조용히 올라오도록 하라."라고 부탁했다. 송시열이 지방에만 머무르지 말고 한양에 올라와 국정의 책임을 맡아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피력한 것이다.

다음 해(숙종 12년, 1686년) 1월에는 송시열의 나이가 80이 되었음을 축하하여 임금이 옷감과 먹을 것을 하사하였다. 쌀 15석, 돼지 2마리, 민어 20마리, 조기 30 다발 등 상당히 많은 양이었다. 이해 4월 18일에는 조정에서 송시열의 책 『주자대전차의(朱子大全箚疑)』를 간행해 주도록 건의하여 임금의 허락을 받았다.

1687년(숙종 13년) 2월 4일 윤증에 대해서 상소문을 올렸다. 윤증(尹拯, 1629년~1714년)은 윤선거(尹宣擧)의 아들로 서인 관료로 소론의 영수이다. 김집,(·)유계,(·)권시 그리고 송시열에게서 배웠다.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분열할 때 노론과 대립하여 소론의 영수가 되어 송시열과 맞섰다. 이러한 윤증과 갈등을 빚고 있던 송시열이 상소문을 올려 다음과 같이 윤증에 대해 보고한 것이다.

"요사이 윤증(尹拯)의 일로 조정의 공론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실지는 허물이 신(臣, 송시열)에게 있는 것이므로 간단하게 대략을 진달 하겠습니다. …… 우리나라는 문충공(文忠公) 정몽주로부터 주자의 학문을 존중했었고, 조선조에 와서는 유현(儒賢)이 배출되어 존경하며 행하고 익히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문순공 이황과 문성공 이이에 이르러서는 더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불행히도 윤휴(尹鑴)란 사람이 당초부터 이황과 이이의 말을 배척하고 문간공 성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으며, 자기의 주장을 저술하여 신(臣)에게 보냈기에 신이 깜짝 놀라며 책망하니, 하늘을 쳐다보고 웃으며 신더러 무엇을 알겠느냐고 했었습니다. 그는 이미 주자의 주설(註說)을 옳지 않다(고) 하여 반드시 자기의 소견대로 바꾸어 놓았고, 『중용』에 대해서는 장구(章句)를 없애버리고 자신이 새로 주석을 만들어 그의 무리들에게 주었습니다. …… 한때의 소위 고명하다는 사람들이 그에게 중독되었고, 윤증의 아버지 윤선거(尹宣擧)가 더욱 심했습니다. 윤선거는 곧 문간공(文簡公)의 외손(外孫)이어서 그 학문이 반드시 올바를 것인데도 지금 이러하므로, 그를 본받아 윤휴에게 투합하는 사람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송시열은 사문난적인 윤휴에 미혹된 윤선거의 아들이 윤증인데 자신이 윤선거를 몰아세우고 윤선거도 법에 걸릴 수 있다고 몰아세우니 그 자식인 윤증이 억울해하고 자신을 비판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윤증이 자신의 제자이지만 자신이 천박하여 자신을 비판한 윤증을 포용하지 못하고 "제가 윤선거에 대해서 비록 소견은 서로 달라 배치되지만, 친구로서 사귀는 의리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어, 그가 죽은 뒤에 있어서도 오히려 생전에 다하지 못한 말을 들어 제문(祭文)에다 질문했으니, 죽은 사람이지만 알게 된다면 반드시 신(臣)의 마음을 이해할 것입

니다. 뜻밖에도 (윤증이) 이 일을 조정으로 밀고 올라가, 천재와 시변 및 국가의 근심거리와 백성의 병폐는 도외시하고 있으니, 사슴만 쫓아가고 앞에 태산(泰山)이 있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신이 진실로 도리를 다하지 못했으니, 윤증이 신을 배척함은 그로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전하께서 윤증을 처음처럼 대우하신다면 이러니 저러니 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조정에 화평한 복(福)이 있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여 윤증을 너그럽게 용서해줄 것을 건의했다.

하지만 임금은 "윤증이 죄를 받게 된 일에 대해서는 한때의 재변과 같은 것이 아니고, 진실로 사문(斯文)에 죄를 얻은 것으로서 관계되는 바가 작은 일이 아닌데, 어찌 의논이 시끄러운 것 때문에 처음과 같이 대우할 수 있겠는가?"라고하여 윤증을 용서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인조 시대 때 율곡 이이와 우계 성혼의 문묘 종사에 대해서 남인들은 줄곧 반대 입장을 취했다. 남인 중에서 특히 핵심적인 인물은 허목·윤선도 그리고 윤휴였다. 이 윤휴는 주자를 비판하고 나아가 율곡의 사상이 불교 사상이고, 유교 사상이 아님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래서 송시열은 윤휴와 대립하고 있었는데 친구이자 사돈지간이기도 했던 윤선거는 윤휴를 감싸기도 하고 편을 들기도 했기 때문에 송시열은 윤선거를 비판했던 것이다. 이를 본 윤선거의 아들 윤증이 송시열과 대립하며 송시열을 비난하여 물의를 일으켰는데 이에 대해 임금에게 상소문을 올린 것이었다. 이보다 2개월 뒤에는 이런 송시열의 상소문에 대해서 송시열의 제자 한성보 등이 두둔하는 상소를 올리기도 하였다. 이 당시 조정은 노론과 소론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었다.

7. 기사환국과 송시열의 축출

한편 해를 넘겨 1688년(숙종 14년) 10월 28일(양력 11월 20일)에 숙종이 득남을 하게 되었다. 부인인 인현왕후에게는 오랫동안 아들 소식이 없었으나 대신 소의(昭儀) 장씨(張氏)가 아들을 낳았다. 이 아들이 후일의 제20대 임금 경종(景宗, 재임 1720-1724)이다.

왕자가 태어나 100일이 아직 지나지 않은 1689년(숙종 15년) 1월 10일, 숙종은 관료들을 대거 불러들여서 왕자의 명호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의견을 구했다.

"나라의 근본을 정하지 못하여 민심이 매인 곳이 없으니, 오늘의 계책은 다른 데에 있지 않다. 만약 선뜻 결단하지 않고 머뭇거리며 관망만 하고, 감히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가 있다면, 벼슬을 바치고 물러가라."

이어서 "오늘 여러 대신에게 묻는 것은 바로 왕자의 명호(名號)를 정하려는 일이다."라고 하여 신하들의 의견을 구했다. 그러나 아무도 선뜻 나서서 대답을 하지 못했다. 이에 이조판서 남용익이 이렇게 건의했다.

"전하께서 물어보신 내용이 의외의 일이기 때문에 저는 대답할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중궁(中宮, 인현왕후)께서 춘추(春秋, 나이)가 지금 한창이시고, 다른 날의 일을 알 수 없으니, (즉 앞으로 또 다른 왕자가 태어날 수도 있으니 -역자주) 갑자기 이런 일을 의논하는 것은 어찌 너무 급하지 않겠습니까? 오직 전하께서는 신중하게 하소서. 전하께서 신을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으니, (벼슬을 바치고) 물러가기는 하겠습니다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호조판서 유상운(柳尙運)도 이렇게 말했다.

"(지금 전하께서는) 이미 왕자를 두시어 신하들과 백성들이 의지할 곳이 생겼습니다. 다른 날에 중궁(中宮)께서 생남(生男)의 경사가 없으면, 국본(國本)은 자연히 정하여질 것입니다. 어찌 명호(名號)를 정하지 않는다고 민심이 흔들리겠습니까?"

이에 병조판서 윤지완(尹趾完)도 이렇게 건의했다.

"남용익의 말이 옳습니다. 한(漢) 나라의 명덕 황후(明德皇后)는 늙어서야 비로소 장제(章帝)를 아들로 삼았습니다. 이로부터 정궁(正宮)을 중하게 여김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후일에 정궁(正宮, 인현왕후)에게 사자(嗣子, 왕자)가 없다면 국본(國本)은 저절로 정해질 것입니다."

대사간 최규서(崔奎瑞)도 이렇게 말했다.

“전하께서 춘추(春秋, 연세)가 아직 한창이시고 왕자께서 탄생하신 지 겨우 두어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찌 이처럼 서둘러 명호(名號)를 정하려 하십니까? 여러 신하의 말이 모두 옳습니다. 뒷날 처리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며, 장차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큰일을 물으시면서 벼슬의 진퇴(進退)를 가지고 아랫사람들을 위협하려고 하시니, 전하께서 아랫사람을 대접함이 또한 너무 박하십니다.”

왕자 명호를 정하려고 하는데 반대의견을 낼 사람은 먼저 사표를 쓰라는 임금의 처사가 박하다고 하면서 새 왕자를 미리 왕세자로 정하기 전에 정궁인 인현왕후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다른 관료들도 명호 정하는 일을 너무 서둘러서는 안 되며 몇 년을 더 기다렸다가 다시 의논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였다.

임금은 이러한 신하들의 의견에 대해서 “인조 임금 때에는 세자 책봉을 할 때 2품 이상의 관료들이 모여 회의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면서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고 이렇게 호소하였다.

“옛날의 가르침에 이르기를, ‘불효(不孝)에 세 가지가 있는데 후사(後嗣)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불효다.’라고 하였다. 내 나이 거의 30이 되도록 후사가 없어 밤낮으로 근심하고 두려워하다가 이제야 비로소 왕자를 두었는데, 지금 내가 명호(名號)를 정하려는 것이 어찌 빠르다고 하느냐? 작년 5월에 내가 꿈속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 ‘내가 언제 아들을 낳겠느냐?’고 물으니, 그 사람이 이르기를, ‘이미 잉태하고 계신데 남자입니다.’라고 하였다. 내가 듣고서 스스로 기뻐하였는데 아들을 낳게 되어 내 마음에 믿는 바가 있게 되었다.”

임금은 “고금이 같지 않아 국세(國勢)가 외롭고 위태하여 후사를 빨리 정하지 않을 수 없으니, 여러 신하의 뜻이 어떠한가를 다시 말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명호 결정을 다시 재촉했다. 신하들은 여전히 성급한 원호 결정을 반대했다.

이에 임금은 “책봉은 5세가 되기를 기다림이 마땅하나, 나라 상황이 외롭고 위태한 데다 강국들이 이웃에 있어 종사(宗社)의 큰 계획을 늦출 수가 없다. 그러니 왕자의 명호를 정하되 해당 관청이 거행하게 하라.”라고 명령을 내렸다. 이러한 임금의 결정에 남용익이 이렇게 아뢰었다.

“왕자의 명호를 정하는 것은 나라의 큰일이라 창졸간에 결정할 수 없습니다. 청컨대 다시 여러 대신과 2품 이상에게 널리 의논하셔서 처리하소서.”

임금은 이에 “큰 계획은 이미 결정되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남용익은 이에 대해 재차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숙종은 남용익을 무거운 죄로 처벌하라고 명하였

다. 대사간 최규서가 이러한 처벌 결정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임금은 허락하지 않았다.

이달 15일 원자(元子)의 정호(定號)가 결정되어 종묘사직에 고하였다. 그리고 당일에 숙종은 소의 장씨를 희빈으로 삼았다. 이즈음 "장씨에 대한 임금의 총애가 날로 성하였는데, 이항(李杭)과 장희재(張希載)가 민암(閔黯)·민종도(閔宗道)·이의징(李義徵) 등과 연락하고 모의하여 못하는 일이 없었다."(『숙종실록 20, 숙종 15년 1월 15일』) 『숙종실록』의 이날 기록 말미에 사관은 '국가의 화가 장차 조석(朝夕)에 있어, 사람들이 모두 무서워서 떨었다.'라고 적어 넣었다. 무언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가 궁중을 뒤덮고 있었다는 것이다.

2주쯤 지난 2월 1일(숙종 15년), 시골에서 원자 명호 결정에 대해서 들을 봉조하 송시열이 급히 상소문을 올렸다.

"지난해 11월 초에 지금의 영의정 김수흥이 글을 급히 저에게 보내어 알리기를, '후궁(後宮)에 왕자의 경사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대개 일전에 항상 같이 근심하던 일이므로 백성들로 하여금 속히 알리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신이 쇠약하여 정신이 혼몽하고 귀가 어두운 가운데서도 저절로 기쁨에 넘쳐 입이 벌어졌는데, 오늘날에 이르러 듣건대, 여러 신하 가운데에서 위호(位號)가 너무 이르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대개 철종(哲宗)은 열 살인데도, 번왕(藩王)의 지위에 있다가 신종(神宗)이 병이 들자 비로소 책봉하여 태자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사례를 들면서 왕자의 명호를 서두른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였다. 임금은 이러한 반대의견을 듣고 대노하여 "아! 내 나이 30에 비로소 한 아들을 두었으니, 이것은 종사(宗社)와 백성이 의탁할 바가 끊어지려다가 다시 이어진 것이다. 그러니 신하가 된 자로서 진실로 우국지심(憂國之心)이 있다면, 황명(皇明)의 고사를 이끌어대어 곧바로 나라의 근본을 일찍이 세우기를 청했어야 마땅한데, 송시열의 상소에는 불만의 뜻이 나타나 있다. (철종이) 열 살이 되도록 번왕에 있었다는 데에 이르러서는, 병이 나자 비로소 태자 책봉했다는 말이 있으니, 그 뜻을 조작하고 꾸민 것이 더욱 위험하도다. …… (송시열을) 잡아다 엄중히 국문(鞫問)하여 정죄하라."라고 일갈하였다.

국가를 걱정하는 마음이 있다면 송시열 본인이 나서서 왕자의 명호를 서둘러야 마땅함에도 이미 정해진 왕자의 명호에 불만을 드러내니 불쾌하다는 것이었다. 신하들은 송시열을 변호하기도 하였으나 소용없었다. 숙종은 불쾌한 감정을 드러낸 것을 넘어 송시열을 '국문'하라고 하였다. '국문(鞫問)'이란 고문, 즉 형구를 사용하여 심문하는 것이다. 중죄인을 심문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임금의 명령이 특별히 필요한 처벌이다. 송시열을 그렇게 하라고 하니 그에게 반역죄를 물으라는 것이다.

이리하여 9년간 집권한 서인 측 노론은 조정에서 완전히 축출되고 남인에게 권력

을 넘겨주게 되었다. 노론 측 많은 관료들은 사직하거나 파직당하고 교체되었다. 중요 인물들은 처형을 당하기도 하였다. 1689년, 숙종 15년에 일어난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기사환국'이라 한다.

8. 율곡의 문묘 출향과 송시열의 사망

임금이 서인과 송시열을 배척한 것을 기회로 남인들은 송시열을 비난하고 율곡과 우계의 문묘 배향을 철회하라는 상소문을 올리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원성(原城, 강원도 원주)의 유학자 안전(安瑔)은 "송시열의 세 가지 큰 죄는, 기해년(1659년, 현종 즉위년)의 대상(大喪)에 군부(君父, 임금의 아버지)를 폄하하여 끌어내린 것이 첫 번째이고, 전하의 탄생 때에 하례(賀禮)를 저지한 것이 두 번째이며, 원자(元子, 임금의 장남)의 명호를 정할 적에 나라의 근본을 동요시킨 것이 세 번째입니다."(『숙종실록』20권, 숙종 15년 2월 22일조)라고 주장하며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동시에 율곡이 불효(不孝)하고 성혼이 불충(不忠)한 것은 유교의 가르침에 대한 죄를 지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문묘 배향에서 내치기를 요청했다. 숙종은 이에 대해서 율곡 등을 "출향(黜享)하기를 청하는 것은 의견이 없지 않으나, 경솔히 의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송시열이 음흉한 것은 내가 진실로 환히 알고 있으나, 법으로 다스리자는 의논은 너무 지나친 것인 줄로 안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상소문에 대해 진사 홍만적(洪萬迪)등이 3월 3일에 안전(安瑔)의 주장을 반박하고 율곡과 우계를 변호하는 상소를 올렸으나 임금은 이를 배척하고, 물리치게 하였다. 이러한 홍만적의 상소를 비판하는 상소가 3월 12일에 또 올라왔다. 진사 이현령(李玄齡) 등은 율곡의 글 가운데는 임금을 업신여기는 데 관계된 것이 많고 말을 가리지 않고 경솔하게 윗사람을 범하였다고 하며 우계 성혼과 함께 문묘에서 내치기를 청했다. 숙종은 "많은 선비들의 논란이 비록 이와 같더라도 출향(黜享)만은 경솔하게 의논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아무리 성격이 급한 숙종이라도 자신이 한번 내린 결정을 쉽게 뒤집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현령 등은 또다시 상소문을 올렸으나 임금은 허락하지 않았다.

이틀 뒤인 3월 14일에 대사간 권해(權瑎)와 헌납 이현조(李玄祚)도 율곡과 우계의 문묘 출향을 요청하였으나 동의를 얻지 못했다. 이보다 3일 뒤인 3월 17일에는 진사 심제현(沈齊賢)이 율곡을 옹호하는 상소문을 올렸다. 그러나 승정원에서는 "이이의 아비가 일찍이 첩에게 미혹되어, 이이를 잘 대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이가 곧장 사찰로 도망해 들어가 법명을 의암(義庵)이라 하였습니다."라고 하면서 "일찍이 성현(聖賢)의 정신을 회복한 성과가 없고, 붕당을 세워 스승의 가르침을 배반하고 어진 재상을 배척하여 간신을 보호하였으니, 어찌 종사(從祀)하는 의식에 논의될 수 있겠습니까? 성혼은 또 이이에게 크게 미치지 못합니다."라고 비판하였다. 남인들이 목소리를 높이면서 조정의 분위기가 이미 이렇게 바뀐 것이다.

숙종은 이에 "심제현 등이 지극히 무엄(無嚴)함을 그대들이 명쾌히 변별하니, 나도 심히 미워하고 통렬히 배척한다."라고 하였다. 이어서 숙종은 다음과 같이 율곡

과 우계의 문묘종사를 후회하는 비망기(備忘記)를 내렸다.

“양신(兩臣, 율곡과 우계)은 국가의 제사를 받는 반열에 오를 수 없는데, 나 때문에 성묘(聖廟, 공자를 모신 사당 즉 문묘)를 더럽혔으니, 지금 돌이켜 보건대 후회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중략) 심제현은 소인의 무리로 감히 간사하고 난잡한 말로 임금을 비방하여 나의 마음에 주장함이 없는 것과 같이 하였으니, 국가를 경멸하고 모욕하며 달가운 마음으로 당파를 비호하는 상황을 배척하지 않을 수 없다. 심제현을 유배형에 처하라.”

임금의 이러한 의중을 확인한 남인 관료들은 율곡 등의 문묘 출향을 건의했다. 조정은 이미 남인이 장악한 상태였고 다음날(3월 18일) 결국 율곡 이이와 우계 성혼의 위판을 문묘로부터 축출하는 일이 일어났다. 이로써 서울의 성균관과 전국의 향교에 봉안되어 있던 두 사람의 위판(位版)은 축출되었고 제사도 폐지되었다.

율곡과 우계의 위판이 문묘에서 제거된 다음 달 윤 3월 28일(1689년 15년)에는 송시열과 김수항을 처형해 달라는 상소가 올라왔다. 상소문을 올린 사람들은 조정의 판서, 참판 등 2품 이상의 관리(卿宰)들이었다. 사관은 그동안 아무리 큰일이 있을지라도 모든 관원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2품 이상의 관료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상소문을 올리는 일은 없었는데 ‘어진이를 장살(戕殺)하는데 급급하여 처음’ 올리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이들의 건의에 대해 숙종은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삼사(三司)의 의논과 공경(公卿, 삼공三公과 구경九卿 즉 고위 관료)의 요청이 이에 이르렀는데, 김수항의 가득 찬 죄는 왕법으로 헤아려 보건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특별히 참작하여 사사(賜死)한다. 송시열이 지은 죄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엄하게 천극(栫棘, 유배지 거처 주위를 가시울타리로 둘러싸는 위리안치圍籬安置의 형벌)을 가하여 간사한 마음을 끊게 하였는데, 반드시 법에 의거하여 다스릴 것이 무엇이겠는가?”

영의정까지 지낸 김수항을 사형에 처하게 되었다. 이때 김수항은 진도에서 귀양살고 있었다. 그는 사사(賜死)의 명을 전해 듣고 시를 지어 자신의 뜻을 전하고 조용히 사망했다.

율곡과 우계의 문묘 철향 소식을 전해 들은 각지의 유생과 관리들은 크게 상심하였다. 일부 관리들은 병들었다고 핑계하고 관청에 출근을 하지 않았다. 숙종은 그런 관리들을 잡아다 철저히 사실조사를 하라고 명을 내렸다. 청풍 부사(淸風府使) 오도일(吳道一)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 오윤겸이 성혼에게서 배웠는데 성혼의 문묘 철향을 외면하여 주위 선비들의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숙종실록』 20권, 숙종 15년 4

월 12일) 4월 21일에도 대사헌(大司憲) 목창명(睦昌明),(·)응교(應敎) 이식(李湜),(·)지평(持平) 정선명(鄭善鳴) 등 관리들이 송시열을 불러다 국문해서 빨리 처벌하라는 상소를 올렸다. 며칠 전 새롭게 정언으로 임명된 성관(成瓘)은 임금과 대면하는 자리에서 "송시열과 홍치상의 죄를 용서한다면 하늘에 계신 선왕(先王)과 선후(先后, 선대의 왕후)의 신령(神靈)을 위로할 수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전하께서도 천하 후세의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여) 강경하게 송시열의 처벌을 요청하였다. 다른 관리들도 송시열을 용서하면 안 된다는 발언이 이어졌으나 숙종은 반응하지 않았다. 성관이 송시열과 같이 언급한 홍치상은 후궁 영빈 김씨의 이모부였는데 다음날 목을 옭아매어 죽이는 교형(絞刑)에 처해졌다. 이때 송시열은 다행히 목숨을 부지하고 제주도에서 위리안치의 유배형을 받고 있었다.

4월 24일, 숙종은 후궁 영빈 김씨를 폐출하는 비망기를 내렸다. 영빈 김씨의 할아버지 김수증은 영의정을 지낸 김수항과 김수흥의 친형이다. 비망기(備忘記, 임금이 명령이나 의견을 적어서 승지(承旨)에게 전하던 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씨는 궁궐에 들어온 뒤로 조금도 공경하고 순박한 행실이 없었고 해괴하게 질투만을 일삼은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밖으로는 김수항(金壽恒) 및 주가(主家, 김수증)와 서로 연락하고 호응하여 임금의 동정(動靜)을 살폈으므로 궁중의 모든 일이 누설되지 않은 것이 없었다. 또 신하들을 불러서 면담했을 적에 한 말을 적어 놓은 메모지를 훔쳐 몰래 보고 나서는 소매 속에 감추어 두었다가 누차 힐문을 받은 뒤에야 비로소 도로 바쳤다. 정말 마음이 음흉하여 실로 헤아리기가 어렵다. 안으로는 교사스럽기 간특한 부인에게 주야로 아첨하여 혈당(血黨)을 맺고 유언비어를 날조하여 못하는 짓이 없었는가 하면, 국가를 교란시키기 위해 군상(君上, 임금)을 무함했으니 실로 패역 부도(悖逆不道)한 죄과를 범한 것이다. 당연히 중법(重法)으로 다스려야 하지만 우선 너그러운 법을 따라 작호(爵號)를 환수하고 정상을 참작하여 폐출(廢黜)시킨 것이니, 그대들은 알라."

이러한 조치는 송시열과 김수항 등 서인의 축출과도 관련되는데 왕비인 인현왕후의 폐위 처분과도 깊이 관련되어 있었다. 당일 숙종은 신하들에게 다음과 같이 왕비에 대한 자신의 심정을 호소하였다.

"내가 이제 모두 말하겠다. 그(인현왕후)가 선왕(先王, 현종)과 선후(先后, 명성왕후)의 분부를 가탁하여 한 말은 실로 총애를 독점하기 위한 데서 나온 것인데, 원자(元子, 큰 왕자)가 탄생하자 그 말이 모두 거짓임이 드러나고 말았다. 국모(國母)가 된 몸으로 간사하고 사특한 것이 이와 같은데도 경들은 매양 '한때의 조그만 잘못이니 끝내는 반드시 감화될 것이다.'하니, 이것이 무슨 말인가?

지난번에 삼사(三司,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가 급히 면담을 요청했을 때 홍치상(洪致祥)과 송시열(宋時烈) 등을 법으로 다스려달라는 요청에 따르면서 은밀히 (인

현왕후에게) 그 단서를 이야기했고, 또 어제도 (생일 축하) 문안 인사를 받지 말라고 했었다. 그렇게 했으면 당연히 (인현왕후 본인도) 송구스러워 불안해하는 마음가짐으로 징계받는 태도가 있어야 하는데, 끝내 스스로 반성하지 않은 채 문득 성난 말로 '진실로 나의 죄다. 어찌할 것인가? 폐출(廢黜)시키려면 폐출시켜라.' 하였다. 왕비의 마음이 이러한데 어떻게 감화되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이처럼 인형왕후에 대한 불만을 이렇게 신하들에게 털어놓은 숙종은 "(인현왕후가) 이름이 국모였지 실제로는 그런 덕이 없는데도 국모로 대우할 수가 있겠는가? …… 이런 사람(왕비)을 오장 육부(五臟六腑)가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왕비는 정궁(正宮)에 살면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말할 적에도 반드시 그 관명(官名)을 일컬으면서 전혀 두려워하는 바가 없었다. 이런 잡류(雜類)들이 궁중에 모여 있으니, 앞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할 말 못 할 말을 가리지 않고 지탄 없이 왕비의 흉을 봤다.

결국 숙종 15년(1689년) 5월 2일 왕비 인현왕후 민씨는 폐비의 처분을 받았다. 임금은 그것도 부족하여 비망기에 "오늘날 민씨는 허물을 지고 범한 것이 윤씨(성종의 전부인 폐비 윤씨)보다 더하고, 윤씨에게 없었던 행동까지 겸하였으며, 선왕(先王, 현종)·선비(先妃, 명성왕후)의 하교를 지어 내어 종사에 죄를 얻었다."라고 적었다. 하지만 이러한 처사에 대해 사관은 같은 날짜 기록에서 임금의 행동에 대해 이렇게 비판했다.

"삼가 살펴보건대, 중궁(中宮, 인현왕후)은 왕후의 자리에 오른 지 거의 10년이 되었는데, 안으로는 후궁의 질투와 이간이 있었고, 밖으로는 간신의 부추김이 있어서, 위험이 핍박하는 변고에 빠져 폐출되는 액운을 당하였다. 임금이 (희빈 장씨에 대한) 총애에 치우치고 분노에 과격하여, 잘못을 크게 드러내 그 죄를 만드는 것에 이르지 아니하는 바가 없었다. 그러나 왕비의 행실과 언어에 일찍이 한 가지 일도 지적해 낼 만한 잘못은 없었으니, 신하들과 백성들이 왕비에게 결함이 없음을 더욱 소상히 알았다."

숙종은 인현왕후 민씨를 폐출하고 그 부모의 봉작도 빼앗았다. 이에 대해 서인 측은 오두인·박태보 등이 상소를 올렸지만, 주동자들이 국문을 당하여 위리안치되거나 귀양을 갔으며, 오두인과 박태보는 사망하기도 했다.

궁중 내부에서 숙빈 최씨나 인현왕후 등 서인과 관련된 인사들을 쳐내고 나니 남인 관료들의 입김은 더욱 세지고 숙종의 행동도 더욱 과감해지고 거리낌이 없어졌다.

처벌을 요청하는 남인 관료들의 상소 행렬 속에서 가까스로 죽음을 면한 송시열은 먼 제주도로 유배를 당하여 그곳에서 위리안치 형을 살고 있었다. 그러나 남인들은 다시 그를 한성부로 압송해 국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남인들이 계속

분란을 만들며 상소하자 숙종은 못 이기는 척 남인의 편을 들어 이를 허락했다. 제주도에서 압송되어 뭍으로 올라온 그는 광양에 이르러 수제자인 권상하 등이 영접하였다.

1689년(숙종 15년) 6월 3일, 숙종은 송시열을 사형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송시열은 조정의 심문을 받기 위해서 광양을 출발하여 정읍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이날 병조 판서 민암(閔黯)은 "송시열이 지극히 흉하고 악함은 국문을 기다리지 아니하고도 알 수 있습니다. 역대 군주들은 나라를 세움이 인후(仁厚) 하여 일찍이 대신을 국문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 (송시열의 처분을) 대신에게 물어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건의하였다. 그래서 임금은 영의정 권대운에게 물었다. 권대운은 "송시열의 범죄는 흉악하나, 나이가 80이 넘었으므로 국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상께서 참작해 처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이어서 그 자리에 있던 목내선·김덕원·목창명 등도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숙종은 이러한 의견을 듣고 다음과 같이 선포하였다.

"대신의 말이 이와 같으니 참작하여 사사(賜死) 하되, 금부도사(禁府都事)가 갈 때 길에서 만나는 곳에서 즉시 거행하게 하라."

제주도에서 압송되어 출발한 송시열은 당시 정읍현에 도달했는데, 조정에서 보낸 금부도사를 만나 사약을 받고 죽었다. 이날이 6월 8일이었으며 이때 나이가 82세였다. 사관은 송시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사약을 받기 전에 송시열은 제자 권상하(權尙夏)의 손을 잡고 부탁하기를, "학문은 마땅히 주자를 주로 할 것이며, 사업은 마땅히 효묘(孝廟, 효종)께서 하고자 하시던 뜻(북벌 정책)을 주로 삼을 것이다.(우리나라는 나라가 작고 힘이 약하여 비록 큰일을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항상) 주자의 이른바, '함원인통 박부득이(含冤忍痛, 迫不得已, 원통함을 품고 어찌할 수 없어서 함)'이라는 여덟 글자를 뜻을 같이하는 선비들이 전수하여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괄호 안의 내용은 권상하의 『한수재집』「수암선생연보」에 기록된 것임) 또 말하기를, "천지가 만물을 낳게 하는 이유와 성인이 만사에 응하는 이유는 '직(直)'일뿐이다. 공자와 맹자로 서로 전하는 것은 오직 하나의 곧을 '직'자인데 주자가 제자에게 부탁한 것도 이에 벗어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다. 제주도에 유배 갈 적에 일찍이 글을 지어 김장생의 묘소에 제사하여, 나쁜 무리가 화(禍)를 꾸민 전말을 모두 진술하였고, 또 그 부모의 묘에 제사 한 글에 그 평생의 출처(出處)를 두루 서술하였는데, 사실이 매우 상세하며 모두 그의 유집(遺集)에 있다.

1690년(숙종 16년) 10월 22일, 숙종은 희빈 장씨가 낳은 왕자를 세자로 책봉하였으며, 희빈 장씨는 왕비로 승격시켰다. 이러한 조치를 반대할 사람은 조정에 이미

아무도 없었다.

9. 갑술환국과 율곡·우계의 복향

왕자의 세자 책봉이 있기 한 달쯤 전에(숙종 16년 9월 30일), 대사헌 윤증이 임금에게 글을 올렸다. 송시열은 사망한 지 4개월쯤 되었을 때였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이와 성혼의 글을 읽고 익혀서 성현이 서로 전한 학문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며 한평생 우러러 사모하는 바탕으로 삼았습니다. 이제 이 두 분이 남에게 헐뜯기어 문묘에 배향되는 줄에서 배척되었으니, 이는 연원이 끊어진 것이고 근본이 뽑힌 것입니다. …… 저는 송시열에게 젊어서부터 배웠는데, 불행히도 정의(情義)를 끝내 지키지 못하고 마침내 편지의 일로 뜻밖에 시끄러운 꼬투리를 일으켜 수년의 분쟁을 가져왔습니다. 저의 망언이 죄를 재촉하여 욕이 어버이에게 미친 것은 말할 겨를도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번번이 조정의 논의가 어그러지고 갈라지는 것을 근심하고 한탄하시어 그 전후의 비답으로 나타내신 것이 매우 절실할 뿐이니, 신은 황공하여 못 견디겠습니다. 마침내 두 신하를 출향(黜享)하라는 명이 또한 마치 두 신하에게 죄를 돌린 듯하였습니다만, 아! 두 신하가 무엇을 간여하였습니까? 부족한 저의 망언이 없었다면 어찌 수년의 분쟁이 있었겠으며, 어찌 임금님의 이러한 처분이 있었겠습니까?”

윤증은 이렇게 자신이 분란을 일으켜 율곡 등이 문묘에서 쫓겨났음을 자책하고 자신은 경신환국 때 역모의 혐의로 사약을 받은 윤휴를 두둔하거나 감싼 적이 없음을 호소하였다. 그리고 지난 기사환국 때 인현왕후의 폐위를 반대하는 상소문을 주동하여 올렸다가 고문을 받고 진도로 유배 도중 노량진에서 죽은 박태보(朴泰輔)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했다.

“박태보의 죽음을 듣고부터 심신이 놀라서 살 생각이 아주 없어졌습니다. 그는 저의 조카입니다. 당초 슬픔 끝에 시름에 못 이겨 임금님의 밝은 세상에서 이런 일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세월이 가면서 침식이 줄고 늘 안정하지 못하여 마치 실성한 듯합니다. 제가 초야에 천하게 틀어박혀 감히 분수를 넘지 못하여, 어리석은 충성을 다 말하지도 못하였으니, 저의 절개가 이지러지고 도리가 끊어졌습니다. 신의 죄는 또한 만 번이나 죽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소문을 읽고 숙종은 기분이 언짢았다. 그래서 상소문에 답을 하지 않고 하명하기를, “윤증의 상소를 보건대, 글 가운데 말뜻에 아름답지 못한 꼴이 많이 있으니, 매우 놀랍다. 도로 내어 주라.”라고 하였다.

이러한 상소문이 올라오고 이틀이 지난 10월 2일 숙종은 윤증의 관직을 박탈하였다. 당시 윤증의 처벌과 관련하여 사헌부의 이러한 건의가 있었다.

“기해년(1659년, 현종 즉위년)에 예(禮)를 논할 때 윤증의 아버지 윤선거가 처음에는 윤휴를 옳게 여기다가, 송시열이 크게 노하여 끊으려 하니, 윤선거가 양편이 다 옳다는 말을 만들고 윤휴를 군자라 하였으므로, 송시열이 분노와 원한을 품은 것이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윤선거가 죽었을 때 송시열이 글을 만들어 제사를 올렸는데 윤선거의 평생의 흠을 죄다 거론하였습니다.

윤증이 처음에는 송시열을 스승으로 섬기며 배웠으나 뒤에 배반한 것은 대개 이 때문입니다. 또 윤증은 윤휴가 죽은 뒤에 윤휴의 사위를 가서 보고 두세 번 탄식하고 상심하며 전의 일을 끌어대어 사화(士禍)에 견주기까지 하였는데, 이것은 관리들이 다 함께 들은 것입니다. 송시열이 처형된 뒤에 흉악한 (노론의) 무리가 윤증을 원망하므로, 윤증이 나머지 위엄을 두려워하여 후환을 면하려고 제 아버지의 설(說)을 바꾸어 임시변통으로 꾸며낼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른바 예론(禮論) 논쟁에서 실신(失身, 절개를 지키지 못함)하였다는 것은 더욱 방자합니다.

이이와 성혼이 출향 된 것은 말하자면, 실로 제사의 욕된 것을 없앤 것인데, 감히 그 조치가 연원을 끊고 근본을 뽑은 것이라는 따위 말을 상소에 올려서 뭇사람의 소문을 현혹하였으니, 관작을 삭탈하소서.”

임금은 이에 “윤증은 뒷날 기치를 세우기에 바빠 앞장서서 상소하여 반복해서 속이므로 참으로 마음이 아프다. 관직을 빼앗은 것도 죄를 가볍게 해 준 것이다.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노론의 거두 송시열이 사망하고 소론의 대표 격인 윤증도 이렇게 관직을 박탈당하니 이제 조정은 남인의 세상이 되었다.

사관은 이날의 조치에 대해서 “아! 기사년(1689년, 숙종 15년)에 임금이 내린 말씀에서 이미 윤증의 일을 거론하여 죄를 양현(兩賢, 율곡과 우계)에게 돌려서 출향하였다. 이에 윤증은 부끄러워 죽기에 겨를도 없어야 할 것인데, 상소하여 변명한 것이 엄밀하고 명확하지도 않다. 또 윤휴와 절교한 일을 논하여 다만 ‘그르고 망령되다.(謬妄)’는 두 글자로 스스로를 변명하였으며, 대계(臺啓, 대간의 보고문) 가운데에는 있는 탄식하고 상심하였다는 말은 그 감정의 흔적을 엄폐하기 어렵다. 상소의 끝에서는 개인적인 슬픔만을 거론하고 조금도 곤성(坤聖, 왕비. 인현왕후)을 언급한 것이 없으니, 아! 이것을 어찌 책망할 만하겠는가?”라고 하여 윤증을 비판하였다.

한 달 뒤(숙종 16년 11월 1일)에 신상화 등 관학생 70명이 상소하여, 윤증을 변호하고 아울러 율곡과 성혼을 출향 한 것이 옳지 않다고 호소하였으나 승정원에서 기각 처리하였다.

이러한 일이 있고 3년 정도는 조정에서 율곡을 언급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 조정은 남인 관료들이 여론을 주도하였고 서인 관료들은 의견 제시를 자제하고 있었으며 노론은 조용히 바깥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숙종 19년 8월 6일 승정원에서 송시열의 제자로 청주에 사는 연최적(延最績)의 상소문을 올렸다. 그의 상소문은 이렇게 시작하였다.

“제가 어설픈 재주와 보잘것없는 견문으로 나이 겨우 20에 가례과(嘉禮科)에 올라, 4년 동안 벼슬살이를 하면서 녹봉만 쓸데없이 허비하고 조금도 보답하지 못하다가 파직되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 있다가 재앙을 만나 대로(大老, 송시열)가 화를 당하였으므로 문을 닫고 자취를 감춘 채 어두운 방에서 시사(時事)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귄 지 얼마 되지 아니하는데, 자기 속을 털어 이야기하는 것은 옛날 사람이 경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임금님의 구언(求言)을 요구하는 말씀이 정성스러움을 보고서 신은 감격하여 대단히 탄식함을 금할 수 없어 가만히 충성의 말씀을 바치려 합니다.”

그리고 연최적은 모두 다섯 개의 사항을 임금에게 권했다.

그 첫째는 ‘하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었다. 그의 말을 빌리면, “하늘이 비록 높고 멀기는 하지만, 듣는 것은 낮고 가깝습니다. 군주의 움직임은 스스로 숨길 수가 없으니 만약 선정(善政)을 행하여 화목한 기운이 위에 감응되면 아름다운 상서가 이르게 되고, 잘못된 정치만을 힘써 어긋나는 기운이 위에 감응되면, 재앙으로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현명한 임금은 자만심을 억제하여 재앙이 변해서 상서가 되게 하고 나쁜 임금은 공경하지 않아서 도리어 재앙을 불러들이게 되는데, 이것은 필연적인 형세입니다. 요사이 해마다 흉년이 잇달아서 백성들이 신음하고 괴로워하는데, 공경(公卿)과 시종(侍從)은 허세만 부리면서 궁곤(窮困)을 숨깁니다.”라고 하였다.

그 둘째는 ‘자신을 복되게 하라’는 것이었다. 그는 『근사록』의 치도편(治道篇)을 근거로, 천하를 다스리는 데는 근본이 있는데,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고, 천하를 다스리는 데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집안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하였다. 근본이 반드시 바르게 되면 법칙이 반드시 착하게 되니, 착하게 되면 집안이 화목하고 친하게 된다. 그런데 집안을 다스리기는 어렵지만 천하를 다스리기는 쉽다고 하였다.

이런 연최적의 상소문을 읽고 숙종은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 어떻게 보면 숙종의 당시 상황을 신랄하게, 그리고 직설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연최적은 이 항목을 서술할 때 율곡의 가르침을 끌어왔다. 그는 율곡이 성리학의 연원을 천명하고, 당시의 원로로서 임금에게 글을 올릴 때는 충성된 마음을 다하였다면서 『성학집요(聖學輯要)』를 추천하였다. 특히 그 가운데 제3, 4권은 “제왕이 지녀야 할 표리(表裏)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명료하게 한 것이니, 더욱 하천을 막는 기둥이며 남쪽을 가리키는 수레라고 이를 만합니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이이를 소급하여 스승으로 삼으시고 그의 문장을 상고하여 거울로 삼으소서.”라고 하였다. 임금이 율곡을 문묘에서 출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최적은 율곡을 배우라고 하니 임금으로서는 어처구니가 없는 상소문이었다.

연최적은 세 번째로 ‘검소한 것을 추구하라고 하면서 “대체로 검소한 것은 덕(德)을 공경하는 것이며, 사치한 것은 안락하게 지내는 것의 극치입니다. 그래서 검소하면 마음은 작게 가지지만 생각하는 것을 멀리하고, 사치하면 마음은 크게 가지면서

도모하는 것은 허술하게 됩니다.”라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그는 넷째로 ‘중도(中道)’를 세우라고하였다. 입니다. 송나라 말엽의 학자 채침(蔡沈)의 말을 이용하여 ‘중도라는 것은 천하 사람이 함께 소유한 것이기는 하나 군주가 세우지 않으면 백성들이 스스로 알맞게 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군주는 쟁반과 같으니 쟁반이 둥글면 물도 둥글게 담기며, 군주는 주발과 같으니 주발이 모가 나면 물도 모나게 담기며, 군주는 근원과 같으니 근원이 맑으면 흐르는 물줄기도 맑으며 근원이 흐리면 흐르는 물줄기도 흐려집니다. 진실로 분노를 잘 경계하고 욕심을 잘 막는다면 지키는 것은 지극히 간략하되 여러 사람을 성취시킬 수 있으며, 조처하는 것은 지극히 공정하되 사사로움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어서 다섯째는 ‘정직한 것을 용납하라.’는 것이었다. “여러 사람이 보는 눈을 나의 눈으로 삼으면 밝음이 보이지 않는 것이 없으며, 여러 사람이 듣는 귀를 나의 귀로 삼으면 총명함이 들리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강조하고, “여러 사람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삼으면 지혜로움이 생각되지 않는 것이 없어 마음이 바다 같이 넓어지고 산같이 높아지게 되어 나의 기질(氣質)을 변화시켜 종신토록 갑자기 노여워함이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갑작스럽게 노여워하는 것이 어디에 그 뿌리가 있는지 드러내는 말이었다. 임금 자신이 정직하지 않고 또 신하들의 정직한 것을 용납하지 않으니 노여움이 생긴다는 것이었다.

여섯 번째로 연최적은 ‘풍속을 돈독’하게 하는 일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지금 모든 관속(官屬, 관청에 속한 사람)이 사무를 태만히 하고 그 직분을 게을리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청탁하고 무리를 지어 끌어서 모여들게 되니, 용렬하고 나이 어린 사람이 갑자기 금대(金帶)나 옥대(玉帶)를 두르는 높은 지위에 오르는가 하면 나이 많아 머리털이 허옇게 센 사람은 낮고 미미한 지위에 오랫동안 있게 되니, 정상적인 임용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망령된 마음을 일으켜 아침저녁으로 꾀하는 것은 전부 자손들의 생업을 위한 것이며, 앉거나 눕거나 경영하고 계획하는 것은 모두 편리하고 좋아하는 물건이 남아돌도록 하는데 마음을 두어 곳간의 곡식을 다 털어서 진기한 물품을 저축하여 두고서, 복식과 거마(車馬)를 아주 화려하게 한껏 사치스럽게 하고, 토지를 넓히고 부리는 사람을 늘려서 보는 것을 풍성하게 하며 듣는 것을 사치하게 하여 거처하는 집은 널직하고 진귀한 보물은 빛이 나며, 잔치를 차려 놓고 서로 어울리기를 매우 숭상합니다.”

임금이 비록 신하들에게 비판의 글을 올려달라고 했지만 이런 글을 읽고 기분이 좋을 리는 없다. 임금의 정치가 아주 잘못되었으며 그 밑의 신하들이 사무를 태만히 하고 부정한 일을 저지르고 있다고 하니 신하들도 연최적을 곱게 볼 리가 없다. 그런 일을 먼저 예상한 것인지 연최적은 이렇게 글을 맺었다.

“제가 마음속의 중요한 것을 터놓고 진달하며 외람되게 얕은 식견으로 천둥 번개와 같은 위엄을 함부로 저촉하게 되었습니다. 마땅히 전하께서는 어여삐 여기시어 너그럽게 용서하소서. 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만나서는 추켜올려서 이야기하고 돌아서서는 미워하며, 활을 당겨 침해함이 점점 성하여져서 제 말을 한 가지 증거로 삼아 저를 엄한 법령으로 논죄하며 저에게 위험한 법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임금이 이러한 상소문을 보고 즉시 비망기를 내렸다.

“전 감찰 연최적이 감히 금령(禁令)을 인식하지 않고 앞장서서 상소문을 올리고 지금까지 없었던 일을 새로 생각해 내는 것이 흉악하고 참혹하다. 사연을 만드는 것이 음험하고 또한 한 글자 한 구절도 화(禍)를 전가시키거나, 해치고 어지럽히는 수단이 아닌 것이 없다. …… 마음 씀이 참혹하고 악독하기가 뱀과 살모사보다 심하니, 그 정상을 논하면 대단히 가슴 아프고 한탄스럽다. 이와 같은 난적(亂賊)은 법률을 분명하게 바로잡아 악한 일을 엄중히 징계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번의 비망기에 의거하여 즉시 국청(鞫廳, 범죄를 심문하는 관청)을 설치하여 엄중하게 실정을 캐내고 신문하도록 하라.”

연최적의 상소문에 대해서 임금은 크게 화를 내고 큰 벌을 내리도록 하명을 하였다. 연최적이 지적한 것들이 하나하나 임금의 심사를 거슬렸기 때문이다. 이미 출향을 한 율곡과 우계의 건을 언급했을 뿐만 아니라 다섯 가지의 건의사항도 임금이 부끄러워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이었다.

율곡과 우계의 문묘 출향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꾸 문제를 제기하자 숙종은 다음 해(숙종 20년, 1694년) 1월 18일에 율곡 등의 문묘 배향 문제를 더 이상 언급하지 못하도록 다음과 같이 공표를 하였다.

“무릇 천하의 일은 반드시 일마다 다 착할 수는 없다. 간혹 앞에서 그릇된 것이 있더라도, 뒤에서 고치게 된 것이 있기도 하고, 오늘 옳은 것을 깨닫고는 어제의 그른 것을 깨우치기도 한다. 이미 그 그른 것을 살피고, 또 그 잘못된 것을 알고서도 ‘내가 이미 이를 행했으니 구습(舊習)에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이 방해되겠는가?’ 하면서, 그 전해 내려가는 해독을 방치하고 날로 쇠약한 지경에 달려간다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을 것이니, 어찌 이런 이치가 있을 수 있겠는가?

아! 문묘에 배향하는 일이 얼마나 중대한 일인가? 당연히 배향해야만 하는데도 배향되지 못한 것은 한때의 잘못된 전례(典禮, 국가의 공식적인 의례)에 불과한 것이지만, 당연히 배향해서는 안 될 것인데도 억지로 배향하게 된 것은, 그것이 성묘(聖廟, 신성한 사당 즉 문묘)를 더럽히고 사문(斯文, 유교)을 욕되게 하는 일인데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이이와 성혼은 본래 덕망이 구비된 사람이 아니고, 또 숨길 수 없는 하자가 많았

는데도 내가 이를 살피지 못하고서 함부로 배향하게 되었음을 면치 못했다. 그것을 '내가 이미 행했다.'고 하면서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시비를 밝힐 도리를 어찌 생각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잘못된 배향은 정치를 새롭게 추진하던 초기에 공론(公論)을 급히 따랐던 까닭이다.

다만 요즘 혹은 이이와 성혼을 위하여 편을 드는 사람이 있고, 혹은 조정의 명령을 어기고서 즉시 출향(黜享, 위패를 치움.) 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인심이 그릇된 풍조에 빠지고 의리가 어두워 꽉 막힌 날을 당하여, 뭇 소인들이 뛰놀려는 조짐과 사설(邪說)이 멋대로 시행되려는 근심을 미리 엄중히 방지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부터 이후에는 감히 이이와 성혼의 일로써 공의(公議)를 돌보지 않고서 앞장서서 의논을 제기하는 사람은, 마땅히 성묘(聖廟)를 모욕한 죄로써 따질 것이니, 마땅히 이를 명백하게 포고하라."

율곡과 우계는 덕망이 갖춰진 사람들도 아니고 드러난 하자가 많은 사람인데 임금 자신이 서둘러 배향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바로잡으려고 하니 더 이상 그들을 위해서 논의를 제기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이의를 제기하는 자는 성묘 모욕죄, 즉 국가 모욕죄로 처벌한다는 내용이었다.

한편 이즈음 궁정 내에서는 큰 변화가 있었다. 숙빈 최씨(영조의 친어머니, 1670년~1718년)가 숙종 19년(1693년) 10월에 숙종과의 사이에서 왕자를 낳았는데 2개월 만에 죽고 숙종 20년 9월 13일에 또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연잉군(延礽君) 금(昑)으로 훗날의 21대 임금 영조이다. 숙빈 최씨는 인현왕후를 모시는 몸종이었다.

숙종은 왕세자를 책봉하는 등 일시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켰지만 불만스러운 점도 있었다. 기사환국 이후 주요 관료들이 조정을 떠나면서 왕권이 약화되었다. 다시 집권한 남인들은 역시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서인에게 보복하는 기회로 삼았다. 그는 남인에게 권력을 대거 넘기고 독점시키면서 약해진 왕권을 회복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또 다른 조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고, 그것은 1694년(숙종 20년) 봄에 새로운 환국, 즉 갑술환국(甲戌換局)으로 드러났다.

이해 초, 노론 명문가의 자제들이 폐비 민씨의 복위를 도모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김춘택(金春澤)·한중혁(韓重赫)·유복기(柳復基) 등 노론이 자제들이 비밀 자금을 모아 궁중의 환관, 궁녀와 내통하여 폐비의 복위를 꾀하려 한다는 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같은 일당이었던 함이완(咸以完)의 고변(告變, 반란행위를 고발함)이 있었는데, 남인 관료 우의정 민암은 이 사건을 이용해 노론을 일망타진하고자 하였다. 사건을 더욱 크게 확대시켜 서인의 많은 관리들이 연루되었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함이완의 고변은 민암이 시킨 것이었다. 이즈음 숙종은 폐비 민씨와 서인에 대해 동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얼마 후 유학(幼學) 김인(金寅)이 상소문을 올렸다. 그는 장희재(張希載, 희빈 장씨의 오빠)가 돈으로 김해성(金海成)을 매수해 숙빈 최씨를 독살하려 했으

며, 신천 군수 윤희(尹憘)·훈국별장(訓局別將) 성호빈(成虎彬) 등이 반역을 도모했으며 훈련대장이 이에 가담했고, 민암·오시후(吳始後)·육창명(陸昌明) 등이 서로 연락을 취하고 있었다고 고발했다.

숙종은 이해(1694년) 4월 1일, 비망기를 내려 민암이 함이완과 수작하여 옥사를 확대하여 임금을 우롱하고 관리들을 함부로 죽이는 정상이 매우 통탄스럽다고 한탄했다. 그리고 국문을 집행한 대신 이하는 모두 관작을 삭탈하고, 도성 밖으로 추방하며, 민암은 멀리 떨어진 섬으로 유배할 것을 명하였다.

숙종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환국을 단행하였는데, 이 일로 영의정 권대운·좌의정 목내선·우의정 민암 등 남인이 물러나고, 대신 영의정에 남구만·훈련대장에 신여철(吳始復)·병조판서에 서문중(徐文重)·이조판서에 유상운 등 서인(노론과 소론)이 대거 기용되었다. 이미 사망한 김수흥·김수항 등의 관작도 회복되었고, 송시열 역시 복권되었다. 남인들은 기사환국 당시에 처벌받은 서인보다 더 많은 수가 처벌받았으며, 이후 두 번 다시 정국의 주도권을 잡지 못했다.

재집권한 서인 측 관리들과 유생들은 곧 율곡과 우계 두 사람을 다시 문묘에 배향하자는 복향(復享) 운동을 벌였다.

예를 들면 이해(1694년 숙종 20년) 4월 21일, 유학(幼學) 신상동(辛相東)이 다음과 같이 상소(上疏)를 하여 복향을 요청했다.

"문성공 이이와 문간공 성혼은 도덕을 완비되고 학문의 연원이 송나라 정자·주자와 다름이 없고, 우리나라 오현(五賢)과 차이가 없는데, 사림에서 문묘에 향사(享祀)하기를 청하여 온 지 50년이 지나서야 전하께서 능히 윤허하시어, 사문(斯文, 유교)을 일대(一代)에 밝히고 성덕을 천추(千秋)에 빛내셨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지난날 어진 이를 미워하는 간사한 무리가 때를 타서 불쑥 일어나 거짓을 가리켜 진실이라 하고 흰 것을 바꾸어 검은 것으로 삼으며, 시비를 어지럽히고 천심을 흔들어, 두 어진 신하가 마침내 출향(黜享) 하게 되었으므로, 성덕이 빛났다가 다시 어두워졌으니, 사림의 억울함이 어떠하겠습니까?

다행히 이 밝은 날에 만화(萬化)가 모두 새로워져도 두 신하의 문묘 종사만은 복구되지 않았는데, 어찌 전하께서 미처 기억하지 못하셨겠습니까? 아니면 전하께서 망설이시는 것이 있습니까?"

신상동은 억울하게 죽은 송시열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건의하였다.

"고(故) 봉조하(奉朝賀) 신하 송시열은 네 조정에서 예로 대우한 원로로서 일대 사문의 종사(宗師,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스승)가 되었으므로, 효종(孝宗)을 추모하고 전하께 보답하려 꾀한 것은 신명(神明)에게 묻더라도 부끄러울 것이 없었으나, 사람들의 말이 망극하여 도리어 임금을 낮추었다는 죄를 입어 마침내 충현(忠賢, 송

시열)이 지하에서 억울함을 품게 되었는데, 이제 천심이 깨닫고 열 중의 부드러운 분부는 충령(忠靈, 충성스러운 신령 즉 송시열의 신령)을 위로할 만하였습니다.

이미 그 벼슬을 회복시키고 나서 또 제사를 내리어 근시(近侍, 임금을 가까이 모시는 신하, 측근)으로 하여금 가서 잔을 올리게까지 하시니, 성감(聖鑑, 임금의 안목)의 명철함이 여기에서 더욱 나타났습니다. 행장을 살펴서 시호를 정하도록 명하신다면, 성명(聖明, 임금의 밝은 지혜)이 회한(悔恨)하시는 정성과 유현(儒賢, 어진 유생 즉 송시열)이 나라를 근심하고 임금을 사랑하던 충성이 후세에 함께 빛날 것입니다."

숙종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사시(賜諡, 시호를 내림)·사제(賜祭, 제사를 지내줌)·정려(旌閭, 정려문을 세워 표창함) 등의 일은 해당 관청을 시켜 품지(稟旨, 왕의 결정을 받아 일을 시행함)하여 거행하게 하라. 성묘(聖廟, 문묘)에 다시 배향(配享)하는 것은 자못 전도(顚倒, 앞뒤가 바뀜)하는 데에 관계되기 때문에 난처하다."

율곡과 우계의 문묘 복향을 제외한 모든 사항은 신상동이 상소문으로 건의한 내용 그대로 시행하도록 하였다. 복향은 배향을 철회했다가 다시 그것을 바꾸는 것이 난처하다는 답을 하였다.

이러한 신상동의 상소문이 숙종에게 전달되고 나서 한 달쯤 뒤(숙종 20년, 5월 22일)에 충청도 유생 임봉진(林鳳珍) 등이 상소문을 올려 이이와 성혼의 복향을 다시 건의했다. 이날 임봉진의 상소문을 전달하는 자리에서 예조 판서 윤지선(尹趾善)은 임금에게 다음과 같이 건의했다.

"경기 유생들이 전후에 걸쳐 상소하여 이이와 성혼의 문묘 종향(從享, 배향)을 복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니, 이 일은 지극히 중요한 일입니다. 다만 시골 선비의 한 상소로 인하여 본조(本曹, 담당 관청 즉 예조)에서 바쁘게 거행한다는 것은 자못 신중한 처사가 아니 오니, 대신들에게 의논하도록 하여 특별히 처분을 내리신다면 실로 성덕(聖德)에 빛남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예조판서의 건의에 대해서 영의정 남구만은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양신(兩臣, 율곡과 우계)의 복향에 대하여 누군들 이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일의 중대한 것은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지난날의 출향(黜享)과 오늘날의 복향(復享)에 있어 다 유생의 건의로 해당 관서가 그대로 거행한다는 것은 근신하는 의리가 아닙니다. 지금 대신으로는 단지 신 한 사람만이 있을 뿐이니 모름지기 여러 대신이 다 이르기를 기다려 다시 의논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영의정이 자신만 대신으로 이 자리에 있으니 다른 대신들에게도 의견을 물어서 신중하게 복향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남구만의 의견에 대해서 임금은 다음과 같이 단호하게 자신의 결정을 하명했다.

"널리 대신들에게 문의하는 것이 진실로 신중한 방도가 될 것이다. 그러나 처음에 정직한 분들을 증오하는 무리들에게 속고 가려진 바 되어 두 분 선현으로 하여금 마침내 출향에 이르게 하였으니, 내가 일찍이 후회하고 한스럽게 생각했다. 만일 다시 그것이 뒤집힐 것을 염려하여 바로 거행하지 않는다면 끝내 흠이 되는 일이 되고 말 것이니, 특별히 두 분 선현의 복향(復享)을 명한다."

이렇게 율곡과 우계의 복향 문제가 매듭지어졌다. 임금으로서는 두 대신의 출향이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신속히 복향 하여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리도록 하명한 것이다.

이러한 복향에 대해서 그것을 반대하는 상소문이 4일 뒤에 승정원을 거쳐 임금에게 곧바로 전달되었다. 진사 한종석 등이 올린 상소문에는 율곡과 우계의 복향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숙종은 이 상소를 물리칠 것을 명하고 다음과 같이 명령을 내렸다.

"기왕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선정(先正, 선대의 현인)을 복향하는 오늘에 있어서 지난해의 기회를 이용하여 정인(正人, 현인)을 미워한 죄상을 명백하게 처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종석 등이 사설(邪說)을 늘어놓아 여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니 이현령(李玄齡)을 먼 변방으로 유배시키라."

이현령은 충청도 유생 임봉진 등이 상소했을 때(숙종 20년 5월 22일) 언급했던 인물로 상소문을 올려 율곡 등을 헐뜯고 무함하였었다. 그는 기사년(1689년, 숙종 15년)에 성균관과 사학(四學) 유생의 대표가 되어 상소문을 올리면서, 율곡과 우계를 헐뜯고 욕하며, 문묘에서 출향할 것을 요청했었다. 임금 생각으로는 이현령에게 죄를 주지 않아 이러한 잘못된 상소문이 올라오므로 이현령부터 처벌을 하도록 한 것이다.

이해 6월 23일 드디어 율곡과 우계의 문묘에 배향이 다시 이루어졌다. 이에 앞서 조정에서는 이들의 집에서 제사를 올렸고 이어서 각 지방의 향교에 포고문을 내리고 순찰사는 위판(位版, 나무로 만든 위패)을 만들어 나누어 주도록 했다. 그리고 길일(吉日)을 선택하여 이날 문묘 배향을 거행하게 된 것이다.

이날 숙종은 다음과 같이 포고문을 발표했다.

"왕은 말한다. (중략) 지난번에 편당하는 사람이 조정을 담당하매 교묘하게 참소

하는 말이 나의 뜻을 현혹함을 면하지 못하여, 상례의 제사를 오래 폐하였다. 그래서 두 영령(英靈)이 편안히 의지할 데가 없게 되었고, 우리의 도(道)가 장차 궁해지게 되매 선량한 선비들의 숨은 고통이 한이 없었다. 비록 거짓말이 올바른 것을 더럽히게 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 죄를 면할 수 없다.

돌아보건대, 한쪽 말만 듣는 통에 간계(奸計)를 부리게 된 것이기에, 내 마음에 부끄럽게 여긴다. 이번에 경장(更張, 다시 고쳐서 새롭게 함) 하는 날을 맞이하여 즉시 잘못을 뉘우치기 시작하여, 무릇 갖가지의 죄악을 다스리고 충성을 표양하는 일을 혹시라도 거행하지 않는 것이 없게 하는데, 하물며 이런 유현(儒賢, 현인 유학자)을 존숭하고 덕을 숭상하는 일을 더욱 어찌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겠는가? 진실로 이미 마음속에 말없이 결단하여 새로워지기를 도모하여 구습을 버리기도 했기에, 아래서 (백성들이) 일제히 누누 한 글발과 긴 상소문을 올리기를 기다릴 것이 없었다."

임금은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신속해 복향을 추진하였다는 것이다. 율곡 등을 복향 하는 데 있어, 다시 상소문을 받아서 시간을 끌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백성들의 상소문을 기다리지 않았다고 하였다.

6월 25일에는 전라도 유생 이준 등이 율곡 등의 문묘 배향을 반대하는 상소를 올리고 하다가 여러 차례 각하를 당하자 행패를 부렸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임금은 그들을 무엄하다고 꾸짖고 그들의 상소문을 받지 말도록 명했다. 6월 29일에는 금구 현령 박성의(朴性義)가 이준을 사주하여 율곡 등을 헐뜯는 상소문을 올리게 하였다. 이에 임금은 지평 이정익(李禎翊)의 건의에 따라 이준을 유배 보내고, 박성의를 관리들의 명부인 사판(仕版)에서 삭제하는 처분을 내렸다.

9월 3일에 조정에서는 영남 유생 안일리(安日履) 등이 상소하여 율곡 등의 문묘 출향을 다시 제기하는 상소문을 제출한 건에 대해서 논했는데 임금은 다음과 같이 교시를 내렸다.

"내가 깊이 지나간 일을 뉘우치고 이번에 이미 복향(復享)을 했는데, 안일리 등이 방자하게 상소했음은 (사람들을) 현혹시키려는 계획이니, 변방의 먼 곳에다 정배(定配)하라."

이에 안일리의 상소 건을 보고한 승지 김구가 말하길, "먼 곳으로 유배하는 죄는 정거(停擧, 과거 응시 금지) 하는 가벼운 벌과는 다릅니다. 그러니 상소를 들여와 하람 하시고 조처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안일리의 유배형에 대해서 상소문을 정식으로 접수하여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그러나 임금은 "그것은 애매하고 알기 어려운 일이 아니니 받아들이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거절했다. 율곡 등의 문묘 배향에 대한 숙종의 의지는 이미 확고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해(1694년, 숙종 20년) 9월 13일, 숙빈 최씨가 아들(후일의 영조)을 낳았다. 인현왕후는 이보다 이른 음력 4월 12일 삼불거로 이혼이 취소되어 자동으로 복위된 상태였다. 조정을 장악하고 있던 소론의 반발이 심하여 6월 1일이 되어서야 왕비로 다시 등극했다. 이 때문에 왕비 장씨는 다시 희빈으로 강등되었다. 왕세자를 낳은 희빈 장씨는 소론이 지지하고 있었고 인현왕후는 노론이 지지하고 있어서 두 여성을 둘러싸고 양측의 미묘한 갈등이 있었다.

이로부터 7년 뒤 1701년(숙종 27년) 8월에 인현왕후가 병으로 사망했다. 이때 임금은 왕비를 저주하였다는 죄를 물어 희빈 장씨를 자진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다음 해 1702년(숙종 28년) 10월 숙종은 김주신(金柱臣)의 딸을 왕비로 맞아들였다. 이 왕비가 곧 인원왕후(仁元王后)이다. 김주신은 박세당의 문인으로 소론 집안 출신이었는데, 나중에는 노론 지지로 돌아섰다. 갑술환국 이후로 서인은 소론과 노론으로 분열되었다. 초기엔 소론 관료들이 중용되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면서 권력은 점차 노론 쪽으로 기울어가고, 소론의 영향력은 계속 약화되었다.

10. 숙종의 사망

숙종 46년(1720년) 6월 8일, 46년간의 긴 통치가 끝났다. 숙종이 경덕궁(지금의 경희궁)에서 59세의 나이로 승하하였다. 이해 음력 8월 15일이 회갑일이었는데 회갑을 채우지 못하였다.

임금의 병은 한 달 전부터 위중해져 4월 24일 궁중에서는 시약청(병 치료를 위한 임시 관청)을 설치하고 사망에 대비했었다. 사망하던 날 아침 일찍 도제조(都提調) 이이명(李頤命)과 사관이 급히 시약청으로 들어가니 연잉군(후일의 영조)이 "드셨던 약물을 모조리 토해내셨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윽고 여러 신하가 침실로 들어가니 임금의 목구멍에서 담(痰) 끓는 소리가 크게 났다. 내시가 큰소리로 조정과 승정원과 홍문관이 문안드린다고 아뢰었으나, 임금이 알아듣지 못하였다.

연잉군이 관원들에게 조금 물러가 있으라고 하여 관리들이 물러나 기둥 바깥에 엎드려 있었는데 "궁녀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밖에까지 들렸고 환시들도 눈물을 흘리며 몹시 바쁘게 다녔다."

중궁(인원왕후 김씨)은 임금의 가슴과 배에 온기가 남아 있으니 약물을 신중히 써서 기필코 회복을 기약하도록 하라고 마지막 희망을 붙들고 있었으나 임금은 끝내 회복하지 못했다. 사관은 당시의 모습을 이렇게 전한다.

"내시 두 사람이 함(函)에다 강사 곤룡포(絳紗袞龍袍, 임금이 조정에서 신하의 하례를 받을 때 입던 붉은 옷)를 담아 대궐 지붕으로 올라가 세 번 주상의 존호(尊號)를 불렀다. 내시가 남쪽 작은 방에서 왕세자(王世子, 경종)를 부축하고 나와 갓과 비단 두루마기를 벗기고 머리를 풀어 곡을 하였다. 연잉군(영조)이 옷을 벗고 머리를 풀고 기둥 밖에서 곡을 했다. 대신 이하가 침실 문 밖에서 엎드려 곡을 했는데, 뒤죽박죽으로 질서가 없었다. 곡이 끝나자 영의정 김창집이 기록관에게 '상대점(上大漸, 임금의 병세가 위중함)'이란 세 글자를 써서 바깥뜰에 내다보이게 하였다. 이때 비가 퍼붓듯 크게 쏟아졌다."

『숙종실록』 부록에 숙종 대왕 묘지문이 실려있다. 거기에 율곡에 관한 언급이 한 군데 보인다.

"왕은 경연의 자리에서 정자와 주자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을 피하였다. 문묘에 송나라 주염계·장횡거·이정(二程)·소강절·주자 등 육현을 정전(正殿)으로 올렸으며, 양무(兩廡, 문묘 안의 동무와 서무)에 있던 한나라 순황(荀況) 이하 열 사람을 내치고 송나라의 양시·나종언·이동·황간 및 우리나라의 이이·성혼·김장생을 배향할 것을 명하였다. 붓으로 친히 송시열의 화양서원(華陽書院)과 송준길의 흥암서원(興巖書院)의 편액을 쓰니, 현덕이 있는 이를 숭상하여 선비의 모범을 통일하기 위함이었다."

숙종은 살아 있을 때 남인과 서인 사이에서 흔들린 경우가 많았다. 남인에서 서인으로 서인에서 남인으로 정권을 바꾸면서 많은 신하를 고통과 죽음의 사지로 몰았다. 율곡과 우계에 대해서도 문묘 배향을 허용했다가 또 어느 날에는 그것을 후회한다고 고백하고 남인의 주장을 따라 율곡과 우계의 학문을 비방하고 폄하하기도 하였다. 나중에는 다시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문묘에 복향을 추진한 것도 숙종 자신이었다. 한때는 깊은 존경심을 표했던 송시열에 대해서도 갑자기 얼굴을 바꾸고 차마 들을 수 없는 모욕적인 언사를 마다하지 않았다. 송시열을 사약으로 처벌한 것은 차라리 가볍다. 하지만 묘지문에 나타난 표현은 다름이 아니라 숙종이 이 세상을 하직하면서 남긴, 참으로 진실한 마음이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 같다. 비록 숙종 자신이 쓴 글은 아니지만, 숙종이 경술환국 직후 신하들 앞에서 보여 준 태도는 그것이 진실임을 방증한다.

「숙종대왕 행장」에 눈에 띄는 구절이 있다. 율곡의 문묘 종사와 송시열의 사사 처분에 관한 숙종 임금의 진실한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고백이다.

"지난 기사년(1689년 숙종 15년의 기사환국 때)의 일을 돌이켜 생각해 보건대, 나도 모르게 절로 마음속으로 부끄러움을 느낀다. (송시열·김수항 등 그때 고통당한 신하들의) 진실하고 정성스러움을 잘 살피지 못하고 어진 보필을 잘못 의심하여, 급기야 은혜와 예절이 쇠하고 답답한 마음을 펴지 못하게 되었다. 내가 일찍이 깊은 밤중에 가라앉은 마음으로 찬찬히 궁구하던 끝에 환히 깨닫고 크게 후회하면서 자나 깨나 고민해 온 지 어언 몇 년이 되었다. (중략)

두 현신(율곡과 우계)의 도학(道學)을 내가 모르는 바 아니나, 처음에 올바른 사람을 해치는 무리들에게 속고 가려져 문묘에서 출향(黜享)시키기에 이르렀으므로, 내가 항상 뉘우치고 한스럽게 여겨 왔다."